

# 朝鮮朝 經筵에서 燕山君의 讀書歷에 관한 考察\*

A Study on the Personal History of Yeonsan-gun's Reading at the Gyeongyeon(經筵) in the Joseon Dynasty

金重權(Kim, Joong-Kwon)\*\*

## ◁ 목 차 ▷

- |                  |        |
|------------------|--------|
| 1. 緒言            | 4. 結言  |
| 2. 書筵에서의 讀書      | <참고문헌> |
| 3. 經筵에서 日程別 讀書行態 |        |

## < 초 록 >

본 고에서는 역대 왕 중 연산군의 독서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자시절 부터 왕위에 오르기 까지 경연에서 실시한 독서에 관련된 상황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였으며, 그가 경연에 나가지 않는 원인과 문신들의 반응, 매년 독서현황, 집권 12년간의 독서자료, 독서행태, 독서회수 등을 밝혔다. 그 결과 연산군은 세자시절부터 독서에 흥미가 없어 문리가 통하지 못했으며, 재위시절에도 독서를 싫어하여 경연에 출석한 회수가 480회에 불과 했다. 경연에서 추천한 책도 「강목」과 「대학연의」 2종으로 이 책들도 모두 완독하지 못하고 폐위되어 그의 독서력이 아주 저조했음을 밝혔다. 따라서 군왕의 저조한 독서력이 개인의 인성과 교육관은 물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要語 : 강목, 경연, 논어, 대학연의, 맹자, 서연, 연산군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kkim@gwangju.ac.kr)

접수일: 2007년 9월 1일 최초심사일: 2007년 9월 3일 심사완료일: 2007년 9월 14일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personal history of Yeonsan-gun's reading, who was known to be the roughest king, at the Gyeongyeon(經筵) in the Joseon Dynasty. It was thoroughly examined what and how he read while he was the Crown prince as well as the king, as documented in the Sillok. The reason for his absence at the Gyeongyeon, the responses from the government officials, the annual list of his reading materials, his reading habits, and the number of his attendances were also examined,

Major findings are as the follows;

Yeonsan-gun was not a man of learning, and lacked the interest and ability in reading even as the Crown Prince. During his reign, he attended the Gyeongyeon only 480 times, evidencing his indifference toward reading and learning. When he was dethroned, he did not finish reading even Gangmog(綱目) and Daehagyeonye(大學衍義), the only two books the Gyeongyeon had earlier recommended. It is evidenced that a king's lack of interests and ability in reading has an absolutely negative impact on his personalities and competences as well as the well-being of a nation.

Key words : Gangmog, Gyeongyeon, Daehagyeonye, Seoyeon, Yeonsan-gun

## 1. 緒 言

조선조 제9대왕인 성종은 자산군 시절에 한명회의 둘째 딸 한씨(공혜왕후)와 결혼하였지만 17세의 나이에 후사 없이 죽자, 尹起畎의 딸 윤씨와 재혼하여 1남 1녀를 두는 등 총 부인 12명에 16남 12녀를 낳았다. 윤기건의 딸은 후궁으로 있다가 공혜왕후가 죽은 뒤 왕비에 책봉되어 1476년 용(연산군)을 낳았지만 성종이 다른 후궁들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질투가 심하여 폐출된 뒤 사약이 내려져 죽게 되었다. 이때가 세자 용이 3살 되던 해였다. 아무것도 모르고 연산군은 어린시절을 어머니 없이 할머니 인수대비(세조의 큰아들 의경세자 비, 소혜왕후, 성종의 어머니)와 계모 정현왕후의 슬하에서 자라났다. 어린시절을 외롭게 보낸 세자 용은 성격이 점차 광폭한 성격으로 변화되어 무오사화, 갑자사화 등 두 번의 사화를 통해 많은 문신들을 학살한 최대의 폭군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한 사태의 원인을 정치적인 목적에서 나온 것과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복심의 결과로 치부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결과론에 불과하다. 용을 세자로 책봉 할 당시(세자의 나이 8세, 1483년) 이러한 과란을 예고하기도 한 성종은 일체 폐비윤씨사건에 대해 거론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자로 책봉하였다. 세자책봉은 곧 부왕 유고시에 왕권을 대행하고 부왕이 죽으면 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약속의 절차이다. 그러므로 군왕으로써의 자질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세자 용의 경우는 환경이 남과 달랐으므로 교육 목적이 세부적이어야 했다. 군왕으로써의 자질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성애를 받지 못하고 자란 세자에게는 인성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인성교육은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독서를 통해 스스로 자아를 발견하고 인격을 형성해나가도록 해야 하며, 훌륭한 스승들은 책 속의 내용 설명에 앞서 많은 경험담과 실례를 들어 올바른 성격이 형성되도록 하고 세자가 독서에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독서하도록 했어야 했다. 세자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책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연유도 독서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집권 말년에 학술기관인 홍문관과 문신과의 독서토론제도인 경연제도도 혁파하

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렇다면 연산군은 실제로 책과는 거리가 먼 역대 왕이었는지, 그가 읽은 책은 어떤 책이었는지, 독서행태는 어떠했는지 선행연구자들로부터 서서히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가 세자시절에 실시한 서연에서의 독서와 그를 지도한 스승, 재왕 시절 혁파하기 전 경연에서 읽었던 독서자료, 독서과정, 독서회수 등을 분석하여 그의 독서력을 밝혀보고자 한다.

## 2. 書筵에서의 讀書

연산군은 성종 14년(1483) 2월 6일 景福宮의 思政殿에서 8세의 나이로 세자 책봉을 받았다. 세자는 부왕의 뒤를 계승해야 할 인물이므로 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자신을 닦아 인격이 형성되고, 왕실을 바로세우고 국가를 잘 다스려 온 천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세자시절부터 기르기 위해 조선조에서는 書筵制度를 마련하여 스승을 정하고 그 스승과 함께 책을 읽어 자신의 역량을 키우도록 하였다. 연산군 역시 세자에 책봉된 지 11만인 2월 17일에 그의 스승인 정창손의 건의로 서연제도가 마련되었다. 당시 세자의 書筵에는 매일 賓客(정 2품) 한 사람, 郎廳 두 사람, 臺諫 각각 한 사람이 진강하였는데, 아침에는 빈객이 진강하고 낮에는 낭청이 入侍하여 아침에 읽은 것과 전에 사흘 동안 배운 것을 復習하고, 매달 15일에는 師·傅와 빈객이 모여서 講讀하도록 하였다.<sup>1)</sup> 즉, 아침에 승지가 가르친 것을 낮에는 보덕 이하의 낭청 등이 세자와 같이 복습하고, 보름에 한 번씩 영의정, 의정, 찬성 등 서연관 들이 모두 모여 강독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는 시강원에서 담당하였다. 「經國大典」〈吏曹〉 세자시강원조에 “왕세자에게 經書와 史籍을 강의하여 올리며 道義를 바르게 啓導하는 일을 관장한다. 모두 문관을 임용한다. 副賓客이상은 他官司의 관원이 겸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

1) 「成宗實錄」卷151. 14年 2月 庚辰(17日) 冊10. 433.

며, 서연관 배정은 師 1명(정 1품, 영의정), 傅 1명(정 1품, 의정), 貳師 1명(종1품, 贊成이 겸임), 빈객 2명(정2품, 좌우빈객), 부빈객 2명(종2품, 좌우부빈객), 보덕 1명(종3품), 필선 1명(정4품), 문학 1명(정5품), 사서 1명(정6품), 설서 1명(정7품) 등을 두고, 주로 사부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강 때만 서연에 나가고 주로 빈객과 낭청이 세자교육을 담당하였다.<sup>2)</sup> 이와 같은 절목에 의하여 동 20일부터 연산군은 처음으로 서연을 시작하였다.<sup>3)</sup>

첫 독서자료는 「小學」으로 결정하고 매일 아침 낮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당시 세자의 나이가 8세로 한 참 뛰어 노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서연관들과 함께 독서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는 시기였다. 이를 염려한 김수광은 경연에서 성종에게 세자가 날마다 서연에서 공부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니 매달 여가를 주어 쉬도록 하면서 예절교육도 시키도록 건의했으나 김종직과 생각의 차이로 이루어지지 못했다.<sup>4)</sup> 김수광은 쉴 틈이 없이 독서에만 열중하면 건강을 해칠까 염려되니 쉬면서 예절교육도 받는 게 좋다는 것이고, 김종직은 어려서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야 자립할 수 있으니 열심히 학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는데, 성종은 김종직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었다.<sup>5)</sup> 김종직의 주장대로 날마다 쉬지 않고 독서한 결과 성종 14년 2월 20일부터 읽기 시작한 「小學」을 15년((1484) 8월 1일에 완독하였다. 완독하기 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완독 기념으로 성종은 잔치를 열어 世子에게 친히 술잔을 잡게 하고 서연관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였으며, 賓客 이상에게 鹿皮 각각 1張을, 輔德 이하에게 각각 활 1장을 하사하였다.<sup>6)</sup> 小學 을 완독한 세자는 계속해서 大學 · 「中庸」 · 「論語」 등의 순으로 독서하였으며,<sup>7)</sup> 독서방법은 구두와 해석에만 치중한 수동적

2) 「經國大典」 <吏曹>

3) 「成宗實錄」 卷151. 14年 2月 癸未(20日) 冊10. 435.

4) 「成宗實錄」 卷152. 14年 3月 庚戌(18日) 冊10. 441.

5) 김종직은 세자의 학문을 위해 힘쓴 보람도 없이 연산군 4년에 유자광(훈구파) 등이 성종실록 편찬자료를 찾는 중 김종직의 弔義帝文을 찾아냈는데, 그 내용이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교하여 쓴 글로 판단하고 사림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김종직의 문인들이 대거 처형당했다.(무오사화)

6) 「成宗實錄」 卷169. 15年 8月 乙卯(1日). 冊10. 611.

인 독서방법을 고수하였다. 당시의 교육제도 상 父子, 君臣, 長幼의 질서를 알도록 하고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독서지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읽기 방식과 뜻풀이에만 열중했던 것이다. 이를 염려한 시강원 金悌臣 등은 그것이 잘못된 독서방법이란 걸 깨닫고 성종에게 “학문하는 길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몸소 실행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대개 그렇지 아니함이 없습니다.”<sup>8)</sup> 라고 읽은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독서 후 실천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책을 읽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자는 「論語」를 성종 17년(1486) 11월 2일에 완독하고, 그 결과를 성종에게 보고 하였다. 보고를 들은 성종은 다시 「孟子」를 선정하여 읽히도록 하였고,<sup>9)</sup> 「論語」를 완독한 기념으로 世子의 師傅·賓客·書筵官 및 書筵에 入參한 臺諫을 宣政殿에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빈객 이상에게는 虎皮 각 한 장을, 서연관과 대간에게는 大鹿皮 각 한 장을 하사하였다.<sup>10)</sup> 세자가 12세가 되자 헌납 최린과 홍응은 학문이 날로 진취하고 있으니 올바른 인물을 선발하여 보양하고, 내관을 선발하여 조석으로 모시도록 하자는 건의를 하였다.<sup>11)</sup> 이는 서연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난 후이다. 그 동안 세자의 학습태도나 독서태도가 부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최린은 성종에게 세자가 학문이 날로 진척되고 있다고는 했지만 가식이었을 것이다. 홍응의 말에 숨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자는 젊으므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도 할 수 있으니 내관을 선발하여 독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세자를 감시하자는 속셈이었다. 성종 17년(1486) 11월부터 읽기 시작한 「孟子」를 성종 19년(1488) 8월 28일까지 1년 9개월여 만에 완독하고 그 기념으로 서연관을 差備門 안에서 음식을 대접하였다.<sup>12)</sup> 그리고 「孟子」 다음으로 「詩經」을 선정하여 강독하도록

7) 「成宗實錄」 卷186. 16年 12月 丙戌(9日). 冊11. 81.

8) 「成宗實錄」 卷186. 16年 12月 己丑(12日). 冊11. 82.

9) 「成宗實錄」 卷197. 17年 11月 癸卯(2日). 冊11. 156.

10) 「成宗實錄」 卷197. 17年 11月 乙巳(4日). 冊11. 156.

11) 「成宗實錄」 卷207. 18年 9月 癸丑(17日). 冊11. 246.

12) 「成宗實錄」 卷219. 19年 8月 己未(28日). 冊11. 370.

하였다. 이 때 세자의 나이는 13세였다. 세자가 서연에서 읽어야 할 책의 선정이나 서연관의 선발은 서연관이 아니라 경연에서 경연관과 협의하여 성종이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하였다. 세자가 15세 되던 해인 성종 21년(1490) 1월 24일에 경연에서 權旼이 서연관의 선발을 건의하여 승정원에서 다시 선발하였는데 당시 서연관은 輔德 李從允, 弼善 柳文通, 文學 安晉生, 司書 閔壽福, 說書 李繼孟 등을 써서 아뢰었다.<sup>13)</sup> 그러나 이 중 吏曹堂上이 사헌부와 의논하여 侍講院文學 安晉生을 書筵官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라 하여 교체하였다.<sup>14)</sup> 23년(1492) 12월 20일에도 문신들은 趙之瑞가 許混의 죄를 구명했다는 구실로 서연관 임명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서연관의 학술적인 책임도 막강하였다. 서연에서 세자를 지도하면서 서로의 학술적인 방향이나 해석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는 추국을 당하였다. 세자가 16세 되던 해인 성종 22년(1491) 2월 5일 조강에서 「詩經」을 강하면서 輔德 李克圭와 說書 李繼孟이 해석상의 논란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sup>15)</sup> 이는 사전에 준비를 소홀이하고 형식적으로 서연에 임한 책임을 묻은 것이다.

한편 세자에 게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있었다. 날씨가 너무 무덥거나 추우면 일정기간 동안 하루에 세 번 하는 것을 조강만 제외하고 주장과 석강을 중단하였다. 성종 21년(1490) 8월 13일에 더위가 물러나자 司憲府持平 李世英은 주장과 석강의 실시와 시강원에 숙직하는 인물배치 등과 문리가 통하지 않는 세자를 위하여 서연관에게 2, 3일 간격으로 가르치도록 건의하였다.<sup>16)</sup>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5일마다 서연관 앞에서 배운 것을 읽도록 하였으며,<sup>17)</sup> 날마다 책을 읽은 후 매월 15일(보름 날)에는 師傅와 貳師까지 함께 참여하여 회강을 열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모임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정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다 못한 侍講院輔德 宋軼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은 세자를 보양하고 덕성을

13) 『成宗實錄』 卷236. 21年 1月 丁丑(24日). 冊11. 566.

14) 『成宗實錄』 卷236. 21年 1月 壬午(29日). 冊11. 246.

15) 『成宗實錄』 卷250. 22年 2月 辛亥(05日). 冊11. 689.

16) 『成宗實錄』 卷243. 21年 8月 癸巳(13日). 冊11. 630.

17) 『成宗實錄』 卷243. 21年 8月 庚子(20日). 冊11. 632.

기르는 것이니 정지하지 말 것이며, 부득이한 일로 정지 할 경우 그 다음날이라도 꼭 실시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sup>18)</sup> 이와 같은 계획으로 모든 문신들이 관심을 나타냈으나 세자 나이 17세가 되도록 문리를 터득하지 못하였다. 보다 못한 성종은 5일에 한 차례씩 강론토록 한 것을 3일에 한 차례 서연관과 빈객이 들어가 강론하여 隱微한 말이나 奧妙한 뜻도 자세하게 풀지 않음이 없도록 하라고 승정원에 전교하였다.<sup>19)</sup> 이 사실을 전해들은 領事 尹弼商, 同副承旨 曹偉 등이 성종과 함께 경연을 마친 뒤 세자의 학습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의내용은 세자가 문리가 통하지 못했으므로 빈객을 3일에 한번이 아니라 주장할 때마다 모시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독서자료로는 「詩經」다음에 「春秋」를 먼저 읽고 「少微通鑑」과 「十九史略」을 읽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sup>20)</sup> 동 1월 29일에도 성종은 權景禧와 시독관 姜謙과 더불어 문리를 통하지 못한 문제를 안건으로 하여 토의를 하였다. 그 결과 조강과 주장에는 「詩經」을 읽은 다음 「尙書」와 「春秋」등을 읽고 석강에는 「十九史略」으로 결정하였다.<sup>21)</sup> 이와 같이 세자가 읽어야 할 책의 선정은 그 필요성에 따라 잘 이루어 졌지만 세자의 독서력에 한계가 있는지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문리가 통하지 않았다. 동 6월 13일 司憲府持平 閔頤가 성종에게 보고한 내용에 있어서도 세자의 독서가 미숙하고 읽어도 틀린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였다.<sup>22)</sup> 성종 역시 세자의 미숙함을 알고 여러 방면으로 고심하였으며, 세자를 지도해준 서연관에게도 소홀하지 않았다. 성종 23년(1492) 11월 26일에는 음식을 접대하고 친히 세자에게 술잔을 잡아주도록 했다.<sup>23)</sup> 이는 스승에 대한 감사함을 몸소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24년 5월 당시 세자는 尙書 · 春秋 · 「通鑑」을 읽고 있었는데, 大司諫 李德崇이 세자는 처음 배우는 처지라 한 책에도 전념하지 못할 것이라 하자 성종은 널리 보아서 문리를 통하게 하려는

18) 「成宗實錄」卷253. 22年 5月 庚寅(15日). 冊12. 38.

19) 「成宗實錄」卷261. 23年 1月 庚寅(19日). 冊12. 135.

20) 「成宗實錄」卷261. 23年 1月 甲午(23日). 冊12. 138.

21) 「成宗實錄」卷261. 23年 1月 庚子(29日). 冊12. 140.

22) 「成宗實錄」卷266. 23年 6月 壬子(13日). 冊12. 192.

23) 「成宗實錄」卷271. 23年 11月 癸巳(26日). 冊12. 246.

것이라 하였다. 洪澣은 「통감」과 「춘추」는 모두 역사책이므로 「춘추」를 읽으면 「통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세자 나이가 어리니 「綱目」은 비록 읽을 수 없더라도 「少微」는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sup>24)</sup> 이덕숭의 주장은 세자가 여러 책을 한꺼번에 읽고 있는 것은 내용에 치중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이고, 성종은 자식이 문리가 통하지 않으므로 여러 책을 보면서도 문리를 통하게 하려는 심정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부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종 24년 11월까지 세자의 학문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성종과 문신들은 또 다시 여러 대책을 강구하였다. 5명의 서연관으로는 부족하니 증원하자는 쪽과(홍한, 윤필상, 韓致亨·柳輕·鄭文炯, 尹壕와 許琮) 5명으로도 충분하다는 측으로 나뉘어졌다(李克培, 盧思慎). 밤에 2인을 숙직하도록 하여 질문에 응하자(정팔). 서연이 끝나면 동궁으로 돌아가 궁첩들과 어울리니 삼가야 한다(양희지). 아침, 저녁으로 서연관과 토론을 열심히 하자(양희지)는 등의 논의가 계속되었다. 이 논의에 따라 성종은 세종조의 예에 의하여 서연관을 5명을 증원하여 10명으로 하고 세자의 독서를 돕도록 하였다.

성종 24년(1493) 11월 12일에는 시강원에서 세자가 학문이 계속해서 진보해야 하는데 독서를 게을리 하고 있다는 것을 성종에게 보고하였다. 성종은 세자가 요즈음 몸이 불편하여 서연을 결석하였다고 庇護하면서 지금부터는 조강 후에 내전으로 들어와 배운 것을 익히도록 하고 식후에는 문안하지 말고 서연관과 조용히 강론하도록 하며, 서연관 또한 좋은 말과 착한 행실로 극진히 가르쳐 학문의 뜻을 넓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sup>25)</sup> 성종 24년(1493) 12월 20일에는 特進官 成倪이 세자가 서연에서 읽고 있는 「大學集註」가 복잡해서 여러 사람의 논의도 각각 다르므로 문리에 통달한 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우니 독서를 취소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성종이 승낙하였다.<sup>26)</sup> 세자의 나이 18세인데도 그

24) 「成宗實錄」卷277. 24年 5月 甲申(21日). 冊12. 314.

“德崇又啓曰：今書筵講「尙書」, 「春秋」, 「通鑑」三書, 世子方在初學, 恐不得專意一書. 上曰：此欲世子博覽而通文理也. 澣曰：通鑑與春秋皆史學, 既講春秋則通鑑可易解也. 世子年少, 「綱目」雖未進講, 「少微」不可廢也.”

25) 「成宗實錄」卷284. 24年 11月 癸卯(12日). 冊12. 438.

26) 「成宗實錄」卷285. 24年 12月 庚辰(20日). 冊12. 453.

동안 독서를 게을리 하여 문리가 통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단면이다. 또한 25년(1494) 7월 17일에도 성종은 세자(19세)가 문리가 통달되지 않았음을 걱정하여 유빈과 함께 그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논의 내용은 세자가 글 읽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여 말을 더듬고 질문에도 답변하지 못하니 하루에 읽은 내용을 다음 날 시독관들과 어려운 것을 분별하여 모두 익힌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독관을 자주 인사이드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sup>27)</sup> 그 후 4개월 뒤 세자가 문리도 다 통하기도 전에 성종은 38세의 나이로 승하하고 말았다.

그 동안 연산군이 세자시절에 읽었던 책은 「小學」, 「大學」, 「中庸」, 「論語」, 「孟子」, 「詩經」, 「尙書」, 「春秋」, 「少微通鑑」, 「十九史略」, 「大學集註」 등 11종이었다.

<표 1> 燕山君이 세자시절에 읽은 책 및 일정

連番	書名	讀書始終日	其他
1	小學	成宗 14年 2月 20日 - 15年 8月 1日	1年 6個月
2	大學, 中庸, 論語	成宗 15年 8月 - 17年 11月 2日	
3	孟子	成宗 17年 11月 - 19年 8月 28日	1年 9個月
4	詩經	19年 9月 - 23年 1月	
5	尙書, 春秋	23年 1月 -	
6	少微通鑑		
7	十九史略		
8	大學集註	24年 12月 20日	中斷

<표 1>에서 보듯이 11년의 세자시절 동안 11종의 책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의 독서행태로써는 완벽하게 완독했다고 할 수는 없다. 조사한 바와 같이 부왕인 성종이 승하하기 전까지 문리를 통하지 못하고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성종이 집권 8년부터 점차 적으로 외적인 환경 때문에 독서력이 하향했듯이 세자 역시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어머니 없이 궁궐에서 보내기란

27) 「成宗實錄」 卷292. 成宗 25年 7月 癸卯(17日). 冊12. 562.

쉽지 않은 일이다. 할머니가, 계모가 아무리 잘 보살펴 주었다 해도 친엄마 같을 수는 없다. 아무리 뛰어난고 훌륭한 스승이 지도를 잘 한들 본인의 의지가 학문에 뜻이 없으면 백번 천 번 책을 읽은들 무슨 내용이 머리에 남겠는가. 또한 서연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궁으로 들어가 궁인들과 놀기에 바빴던 그의 행태 등으로 보아 세자시절의 독서력은 뛰어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다음 장에서는 부왕인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군의 경연에서의 독서력을 밝히기 위해 그의 경연에서의 일정별 독서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經筵에서의 日程別 讀書行態

조선조 선왕들은 왕위에 오르면 경연관과 경연에서 독서할 자료를 선정하여 독서하고 그 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정사에 대한 토론을 실시해 왔다. 연산군 역시 부왕인 성종에 이어 왕위에 오르자 홍문관에서 경연을 청하였으며, 노사신은 연산군 1년(1495) 4월 19일卒뜻이 지난 후 「通鑑綱目」과 「大學衍義」를 선정하면서 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도가 갖추어 실리지 않은 것이 없다 하여 2종의 책을 읽도록 했다. 그러나 연산군은 세자시절부터 읽기 싫어한 책을 왕이 되어서도 읽어야한다 하니 달갑지 않았다. 더구나 성년이 되었어도 문리가 통하지 못하고 왕이 되었으니 참담할 노릇이었다. 마지못해 그는 변명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다. 그 중의 일부를 보면, 중국사신이 오기 전에 鍼灸를 하여 신병을 치료한다는 이유로 사양하였으며,<sup>28)</sup> 동 4월 22일에도 大司憲 李誼, 執義 金肆, 持平 崔溥가 오래도록 경연을 폐하고 경연청도 수리가 끝나지 않았으니 다른 殿으로 옮겨 경연을 열도록 했으나 연산군은 “내가 허리 아래에 병이 있고 발도 역시 시고 아프니, 지금 중국 사신이 오게 되었는데 만약 치료하지 아니하면 행보가 반드시 어려울 것이므로, 이 때문에 經筵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sup>29)</sup> 동

28) 『燕山君日記』 卷4. 1年 4月 壬申(19日). 冊12. 661.

29) 『燕山君日記』 卷4. 1年 4月 乙亥(22日). 冊12. 661.

4월 28일에는 정괄이 경연을 청하였으나 灸瘡을 앓고 있다는 구실로 회피하였다.<sup>30)</sup> 동 5월 8일에도 지평 최보가 경연을 청하였으나 연산군은 “나도 빨리 나가려고 한다. 그러나 땀 뚝 곳아 지금 짓무르고 또 발바닥이 아직도 아프니, 이것은 반드시 전일 廬幕에 거처할 때 風證이 생겨서 그런 것이니라.”<sup>31)</sup>하였다. 자신은 이런 저런 구실을 삼아 독서를 회피하면서 홍문관으로 하여금 내관 金舜孫에게 「綱目」을 가르치게 하였으나 홍문관원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다.<sup>32)</sup> 연산군 1년 5월에 충청도 도사 김일손(무오사화 때 효수 당함)의 상소 내용에 경연에서 읽어야 할 책이 소개되었다. 「禮記」를 읽으면서 조강에서 「大學衍義」, 丘濬의 「大學衍義補」, 야대에서 「綱目」을 읽도록 추천하였다.<sup>33)</sup> 동년 5월 21일 처음으로 독서자료를 「綱目」으로 선정하고 侍講官 成希顔과 함께 독서를 시작하여 22일, 25일 총 3일간 실시하였다. 그 뒤 경연은 계속해서 아프다, 덩다는 등의 구실로 경연에 참석하지 않다가 8월 24, 25일에 대간들의 건의로 겨우 2회 경연에 참석했으며, 9월 4일에 「綱目」의 <王莽紀>를 侍讀官 朴億年, 檢討官 李顥 등과 강독하였다.<sup>34)</sup> 9월에 4, 5, 6일 총 3일정도 경연에 나오다 중단하자 중단하지 말 것을 사간원에서 상소를 올렸는데 연산군은 발병(足疾) 때문에 나가지 못했다고 하였다.<sup>35)</sup> 결국 10월 까지 독서결과가 없었다. 11월 5, 8, 10, 11, 12, 14, 15일 총 7회 경연에 가지못해 나와서 책을 읽게 되었으며, 12월에는 16, 17, 18, 20, 21, 26일 등 총 6회 독서하였으나 조강은 없었고 주장만 실시하였다. 당시 연산군의 독서태도는 너무 형식적이었다. 그 근거로 김일손의 건의 내용에서 엿볼 수 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講讀할 때에 입으로 章句를 읽기만 하지 마시고, 옛사람의 한 일의 자취를 대할 때마다 반드시 내 몸에 돌이켜서 깊이 생각하여 마음으로 깨달으소서. 그래야 학문의 공이 나타날 것입니다.”<sup>36)</sup>라고 하였다. 즉,

30) 「燕山君日記」 卷4. 1年 4月 辛巳(28日). 冊12. 662.

31) 「燕山君日記」 卷5. 1年 5月 庚寅(08日). 冊12. 667.

32) 「燕山君日記」 卷5. 1年 5月 丙申(14日). 冊12. 669.

33) 「燕山君日記」 卷5. 燕山君 1年 5月 庚戌(28). 冊12. 675.

34) 「燕山君日記」 卷9. 1年 9月 甲申(4日). 冊13. 32.

35) 「燕山君日記」 卷5. 1年 9月 丙午(26日). 冊13. 37.

36) 「燕山君日記」 卷110. 1年 11月 甲申(5日). 冊13. 43.

아무 생각 없이 문장만을 읽어 내려가는 연산군의 독서태도를 보고 김일손이 ‘생각하면서 읽기’를 권유한 것이다. 연산군의 머릿속에는 독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즉위 초부터 계속해서 경연을 정지하곤 한 것으로 보면 알 수 있다. 직제학 表沿沫 등이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촌음이라도 시간을 아껴서 경연에 나와 독서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연산군은 감기증세가 있다하여 내일로 미루었다.<sup>37)</sup> 연산군은 하루에 세 번은 고사하고 한 번도 하기도 어려웠다. 경연에서는 경연관들과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대신들과 정사도 의논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경연에 나오지 않는 것은 국가 운영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간 李宜茂 등이 상소를 올려 경연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책을 읽도록 하고, 향락이나 여색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였다.<sup>38)</sup> 그 뒤 12월 중순에 이르러 주장에 나아가 시독관 成希顔, 南宮璩, 洪瀚, 金壽童, 金詮, 시강관 表沿沫, 李世銓 등과 「大學衍義」로 강독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연산군 1년(1495)에는 총 독서 일정이 15일을 벗어나지 못했다. 주장은 6일정도 했는데, 이는 거의 낮에도 독서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주장 독서자료는 「大學衍義」였다. 그러나 이것도 해를 넘기면서 취소되었다.

연산군 2년(1496)에 있어서는 1월에 시강관 洪瀚이 아침에 읽는 「綱目」은 권질이 너무 많아 완독하기 어려우므로 주장에 읽고 있는 「大學衍義」를 시간 나는 대로 혼자 읽도록 하고 조강과 주장에 모두 「綱目」으로 강독하자는 합의를 하였다.<sup>39)</sup> 합의는 했지만 경연을 중단하는 일이 많아 책을 읽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계속해서 사간원, 홍문관 등에서 경연을 중단하지 말도록 건의하였다. 그 뒤부터 가끔씩 경연에 나와 「綱目」을 읽곤 하였다. 2년 4월에 몇 번 나오고 5월에는 신병상의 이유로 경연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전교를 내려 나오지 않았다.<sup>40)</sup> 이 달 연산군은 어머니인 폐비 묘를 이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발표를 들은 권균 등이 3년 상을 치룬 다음에 이장해도 늦지 않다고 하며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37) 「燕山君日記」 卷10. 1年 11月 戊子(9日). 冊13. 44.  
 38) 「燕山君日記」 卷10. 1年 11月 丁酉(18). 冊13. 47.  
 39) 「燕山君日記」 卷12. 2年 1月 壬寅(23日). 冊13. 67.  
 40) 「燕山君日記」 卷15. 2年 5月 甲寅(8日). 冊13. 108.

불구하고 연산군은 모자의 정은 사람마다 모두 있는 것인데 내년엔 하더라도 금년부터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를 반대한 권균의 저의가 무엇인지 문초하라고 하였다. 홍문관 박처륜 등이 간원을 가두고 문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연산군은 권균을 석방하고 논계 때문에 석방한 것이 아니라 언로가 막힐까봐 석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홍문관 직제학 표연말도 윤씨의 묘를 옮기지 말라는 성종의 유지가 있으니 따라 달라는 것이었다. 연산군은 그대들이 이처럼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성종의 유고가 있었으니 여기서 멈춘다. 그대들은 하늘에서 땅에서 태어났는가? 하고 반대하는 신하들에게 원망서린 말을 남겼다.<sup>41)</sup>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반대하자 아무리 어머니가 불측한 죄를 저질렀어도 영원히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뼈에 사무치니 더 이상 논하지 말라 하였다. 그래도 홍문관에서는 계속해서 10월까지 상소를 올려 반대의사를 표했지만 개진되지 못하고 연산군의 뜻대로 진행되었다. 기록상으로는 병을 빙자하여 독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연산은 경연을 열고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점차적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부왕의 유지가 있다하여 반대하는 홍문관 관원들이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이 또한 홍문관 관원을 미워하고 독서를 싫어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2년 9월 14일에는 때 아닌 눈이 오자 연산군은 자신이 경연을 열지 않고 군신을 가끔씩 대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덕하여 천변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sup>42)</sup> 그 후 승정원의 건의에 따라 9월 17일에 18일부터 경연에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sup>43)</sup> 약속대로 18일부터 10월 2일 까지 독서하였으나 3일부터 다시 중단하였다. 홍문관 부제학 金壽童 등이 중단한 것을 알고 경연을 자주 폐하고 내시와 친근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연산군은 감기와 후설의 통증 때문에 경연에 나가지 못했다는 답변을 하였다.<sup>44)</sup> 계속해서 경연에 나가

41) 『燕山君日記』 卷15. 2年 6月 庚辰(5日). 冊13. 112.  
42) 『燕山君日記』 卷18. 2年 9月 丁巳(14日). 冊13. 142.  
43) 『燕山君日記』 卷18. 2年 9月 庚申(17日). 冊13. 144.  
44) 『燕山君日記』 卷18. 2年 10月 壬辰(19日). 冊13. 152.

지 않고 궁에서 놀기만 하여 문신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지 연산군은 일주일 후 인 10월 26일 승정원에 손수 글을 써서 “누워서 앓은 병은 아니지만 나오면 하루에 세 번은 못하더라도 아침 경연에는 나가겠다.”고 하였다.<sup>45)</sup> 그 후 경연에는 한동안 발걸음도 안했다. 다시 11월 5일에 감기증세 등이 아직 완쾌되지 않았으나 10일부터 경연에 나가겠다고 약속하고도<sup>46)</sup> 약속일이 다가오니까 다시 신하들에게 자신이 감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니 경연에 나가는 것을 고려해 달라라는 내용을 보냈다.<sup>47)</sup> 전교를 받은 부제학 金壽童은 하루에 세 번은 못 나와도 한번이라도 참석하도록 권유했으며, 11월 16일에 장령 李自健도 경연에 나갈 것을 건의하였으나 여전히 감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48)</sup> 이튿날 다시 이자건이 건강이 좋지 않은데 억지로 경연에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10일부터 나온다고 약속해 놓고 나오지 않아서 칭찬 것이라고 했지만 아무 답변이 없다가 동 22일 연산군이 경연에 나가지 못한 이유를 감기 때문으로 밝혔다.<sup>49)</sup> 그러나 이 글을 받고도 또 다시 사간원에서 경연에 출석할 것을 건의 하자 연산군은 詩를 지어 승지들에게 보도록 하였다.<sup>50)</sup> 자신은 감기와 열이 계속되어 밤에는 잠 못 이루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신하들은 계속해서 경연에만 나오라고 한다는 하소연이다. 이 시를 접한 사헌부에서는 다시 상소를 올려 경연의 중요성을 말하고 주강은 사대부를 만나 정사에 관한 토론을 하고, 밤에는 야대를 하여 여색을 가까이한 것을 막는 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sup>51)</sup> 12월 2일에도 홍문관 부제학 김수동이 건의하였으나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는 답변이었다.<sup>52)</sup> 계속된 신하들의 재촉에 견디지 못하고 12월 8일부터 경연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12월 9일에

45) 『燕山君日記』 卷18. 2年 10月 己亥(26日). 冊13. 154.

46) 『燕山君日記』 卷19. 2年 11月 戊申(5日). 冊13. 158.

47) 『燕山君日記』 卷19. 2年 11月 辛亥(19日). 冊13. 159.

48) 『燕山君日記』 卷19. 2年 11月 己未(16日). 冊13. 161.

49) 『燕山君日記』 卷19. 2年 11月 乙丑(22日). 冊13. 162.

50) 『燕山君日記』 卷19. 2年 11月 丙寅(23日). 冊13. 164.

“咳深煩多困氣脈，耿耿終夜未能眠，諫官不念宗社重，每上疏章勸經筵。”

51) 『燕山君日記』 卷19. 2年 11月 庚午(27日). 冊13. 166.

52) 『燕山君日記』 卷20. 2年 12月 乙亥(02日). 冊13. 167.

는 「綱目 <光武帝本紀>를 시강관 李承健과 함께 읽었으며, 10일 시독관 金銓, 11일에는 孫澍가 강독하면서 대학연의 란 책이 어떤 책인지를 연산군에게 소개하였다.<sup>53)</sup> 그러나 14일 까지 경연에 나와 독서를 잘 하는가 보다 했는데 또 다시 감기증세가 있다하여 그만 두었다. 따라서 연산군 2년(1496)의 독서일정을 보면 1월 19일에 조강 1회, 17, 18, 20, 21, 22, 23, 24일 등 총 7회는 주강을 하였으며, 2월, 3월은 한 번도 독서 일정이 없었고, 4월에 20, 21, 22, 23일까지 4일 동안 독서했으며, 5, 6, 7, 8월은 독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9월에 18, 19, 20, 21, 24, 27, 28, 29, 30일까지 총 9회, 10월에 1, 2일 2회, 11월은 없고, 12월에 8, 9, 10, 11, 12, 13, 14일까지 7일간으로 연산군 2년에 조강 총 23회, 주강 7회로 그쳤다.

이듬해인 3년(1497) 1월 2일에 승정원에서 경연에 나가기를 건의하자 감기증세가 아직까지 차도가 없으니 며칠간 조리해야겠다는 말 뿐이었다.<sup>54)</sup> 4일, 5일, 6일 문신들은 계속해서 건의하였다. 13일에는 여러 대간들이 승시하여 건의하고, 15일에는 장령 李守恭이 건의하였다. 계속된 건의 속에 연산군은 귀찮았는지 19일에 드디어 21일부터 경연에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하고,<sup>55)</sup> 다음날 의정부·홍문관·사헌부에 조강에만 나아가겠다는 전교를 내렸다.<sup>56)</sup> 연산군의 약속을 받은 지평 강숙들은 조강에 참여할 대상을 領事·知事·特進官·臺諫이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승지와 경연관·사관들만이라도 참여하여 시강하도록 하였다.<sup>57)</sup> 드디어 3년 1월 22일부터 「通鑑綱目」<光武紀>편을 26일까지 계속해서 읽었다. 동 2월 2일에는 경연에 참여한 공로로 경연관, 사관 등에게 검은 신을 하사하기도 하였으며, 2월 12일에는 잔치를 베풀기도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무관들과의 잔치관계로 경연을 정지하겠다고 하였다.<sup>58)</sup> 14일에 홍문관 부제학 金壽童 등이

53) 「燕山君日記」 卷20. 2年 12月 甲申(11日). 冊13. 170.

54) 「燕山君日記」 卷21. 3年 1月 甲辰(02日). 冊13. 177.

55) 「燕山君日記」 卷21. 3年 1月 辛酉(19日). 冊13. 184.

56) 「燕山君日記」 卷21. 3年 1月 壬戌(20日). 冊13. 185.

57) 「燕山君日記」 卷21. 3年 1月 癸亥(21日). 冊13. 185.

58) 「燕山君日記」 卷21. 3年 2月 乙酉(13日). 冊13. 192.

경연을 우선시해야한다는 건의와 그 후 사헌부의 상소, 2월 27일에는 홍문관 부제학 李承健<sup>59)</sup> 등이 잔치를 끝냈으면 속히 경연에 나오라는 식의 건의를 하자 연산군은 “내가 좀 안질이 있어 조리하고 나가려 한다. 경연에서는 어진 선비를 면접할 뿐만이 아니라, 부지런히 글도 보아야 하는데, 안질이 낫지 않는다.”는 구실로 차일피일 미루었다.<sup>60)</sup> 2월 30일에 의정부에서도 건의하자 안질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3월 4일에 다시 이승건이 3, 4일 조리하고 경연에 나오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 열흘이나 지났으니 경연에 나오시라 하자 연산군은 역시 “안질이 낫지 않아 가끔 『大學衍義』를 읽는데, 두어 장을 지나면 두 눈동자가 티끌이 덮는 것처럼 어두워지므로 오래도록 나가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다.<sup>61)</sup> 그 후에도 의정부에서 건의하였으며, 3월 11일 李承健이 다시 연회에는 참석하면서 경연에는 왜 나오지 않느냐는 형식의 건의를 하자 안질이 간혹 안개가 가리는 것 같아서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연회참석은 앉아서 먹는 것이라 글을 보는 것과는 다르니 나오면 나가겠다는 식이었다.<sup>62)</sup>

3월 19일에는 대간들이 합사하여 건의한 내용 중의 문구를 보면, “經筵을 오래도록 폐지하여 학문에 부지런하지 못하니, 게으르고 오만한 데에 가깝지 않나이까? 전하께서는 과연 이로써 끝없는 服을 누리겠습니까?(중략) 날마다 경연에 납시고 문신들을 맞이하여 『대학』의 誠意正心 이하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국가에서는 아주 다행이겠습니다.”<sup>63)</sup>라고 강력하게 건의하자 다음 날인 3월 20일에 연산군은 안질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경연에 나와 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신하들에게 섭섭한 감정이 있는 듯한 내용으로 어서를 내리기도 하였다.<sup>64)</sup> 4월 22일에도

59) 李承健(1452~1502) 자는 自強. 본관은 牛峯으로 成宗 11년(1480) 식년 문과에 급제. 注書가 되고 東陽 13년(1482)에 掌令·執義를 역임하였으며, 연산군 원년(1495)에 司成이 되었고, 뒤에 洪文官 副提學·戶曹參判 등을 지내고 同知義禁府事에 이르렀다. 연산군 10년(1504)에 갑자사화로 관직이 추탈되었다가 중종반정으로 복관되었다.

60) 『燕山君日記』 卷21. 3年 2月 己亥(27日). 冊13. 198.

61) 『燕山君日記』 卷22. 3年 3月 丙午(4日). 冊13. 199.

62) 『燕山君日記』 卷22. 3年 3月 癸丑(11日). 冊13. 200.

63) 『燕山君日記』 卷22. 3年 3月 辛酉(19日). 冊13. 204.

64) 『燕山君日記』 卷22. 3年 3月 壬戌(20日). 冊13. 205.

경연에 나오지 않자 대간이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래로 경연을 오래도록 폐지하여, 며칠 동안 開講하다가는 이어 다시 정지하시고, 朝賀·朝啓까지도 또한 폐지하여 남시지 않으므로, 어진 선비를 면접하는 날은 적고 환관을 친근히 할 때는 많습니다.”<sup>65)</sup>라고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으로 대간은 파직의 위기까지 몰리기도 하였다. 그들은 다시 5월 10일 복직하여 경연참여를 건의하였으나 연산군이 듣지 않자 실효성이 없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혁파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가 하고 건의하였다. 홍문관 등을 혁파하라는 말에 연산군은 화를 내어 삼정승, 육경 등도 말을 할 때는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하물며 대간이 말을 함부로 하여 홍문관을 혁파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경연에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가기 싫어서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씨는 덥고 몸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해도 너무한다는 격이다. 결국 대간을 파직하라는 명을 내린다. 승정원과 연산군의 세자시절에 스승이었던 宋軾, 이승건 등이 파직을 만류하였으나 무시하고 파직을 강행하였다.<sup>66)</sup> 며칠 후 신수근, 의정부, 홍문관 등에서 다시 파직은 부당하다고 건의하자 연산군은 “지금 대간이 ‘홍문관과 대간을 혁파하면 아래에서는 외람되어 아뢰는 일이 없고, 위에서 전교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이다.’하였는데, 이는 성내고 방자한 말이다. 홍문관을 파하려 한다는 것은, 내가 경연에 나가지 않는다고 꺼낸 말이다. 氣候가 편치 못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인데, 대간의 이런 말이 어찌 옳겠는가? 경 등은 분별해 보라. 내가 짐작해서 하겠다.”하자 계속해서 의정부, 홍문관 등에서 대간의 말이 지나친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니 용서해야 언로가 막히지 않으므로 파면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결국 연산군은 그들을 복직 시키라는 승낙을 하면서도 건의사항은 절대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sup>67)</sup> 동년 5월 25일 홍문관 부제학 李承健 등이 차자를 올려 경연에 나와 독서하도록 했으나 연산군은 “근일 瘧症이 있으니 날씨가 서늘해지면 경연에 나가겠다.<sup>68)</sup> 하고서는 약속을 지키지

65) 『燕山君日記』 卷22. 3年 4月 癸巳(22日). 冊13. 214.

66) 『燕山君日記』 卷23. 3年 5月 辛亥(10日). 冊13. 217.

67) 『燕山君日記』 卷23. 3年 5月 癸丑(12日). 冊13. 219.

않자 다시 동년 6월 6일 이승건 등이 아주심한 언사로 “전하께서 복을 벗으신 뒤부터는 모든 일에 태만하여 經筵에서 일 보시는 것을 모두 停廢하여 버리고 오직 간사한 사람만을 높여 주며 내시만을 총애하고, 관작을 남발하며 상 주는 것이 절차가 없고, 온갖 동물이 禁苑에 들끓고 양과 돼지가 궁전 옆에 뛰쳐나오며, 비록 충직한 말이 날마다 들어가고 백성의 원성이 날로 쌓이는데도 생각해 보고 들으려 하지 않으시니, 전하께서 정사를 닦는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고도 하늘의 경계를 근신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연산군은 暑症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하였다.<sup>69)</sup> 계속해서 신하들이 경연출석을 건의하자 겨우 3년(1497) 6월 29일, 7월 1일에 侍講官 張順孫 등과 綱目의 <漢紀>를 읽었다. 7월 2일에는 시독관 李守恭 등과 7월 4일, 7월 5일 시독관 李顥, 지사 이극돈 등과 綱目의 <漢光武紀>를 읽었다. 6, 7일, 8, 11, 12, 14, 15, 16, 17, 18일 계속해서 경연에 나와 시강관 張順孫, 侍讀官 尹金孫, 시강관 李守恭 등과 綱目의 <光武紀>편을 읽고 정사를 의논하였다. 그러나 신하들은 경연을 중단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경연 장소에서도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 것을 요구 하였다. 19일에는 시강관 金詮과 「綱目」의 <明帝紀>를 강독하기 시작하여 26일, 27, 29, 30일, 8월 1일, 2, 4, 6, 7, 8, 9, 11, 12, 13, 17일 까지 책을 읽고 그 이후부터 중단하였다. 중단하자마자 신하들은 다시 강열하게 건의하였다. 당시 연산군은 독서보다 사냥이나 활쏘기를 더 좋아하였다. 보다 못해 3년 9월 11일 대사간 정석건 등이 사냥 보다는 경연에 나와 열심히 독서하도록 권장하여 9월 18일부터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sup>70)</sup> 연산군은 약속한 대로 18일에는 경연, 주장, 석강을 모두 실시하였다. 9월 19일에는 「강목」 중 <章帝紀>를 강독하였으나<sup>71)</sup> 그 후 10월 중순까지 독서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동년 10월 9일에는 추위가 날로 심하여 경연에 참여치 못한다 했으며,<sup>72)</sup> 10월 13일에는 경연에서 대간이 늦게 나가므로 인해

68) 「燕山君日記」 卷23. 3年 5月 丙寅(25日). 冊13. 224.

69) 「燕山君日記」 卷24. 3年 6月 丙子(06日). 冊13. 229.

70) 「燕山君日記」 卷27. 3年 9月 己酉(11日). 冊13. 275.

71) 「燕山君日記」 卷27. 3年 9月 丁巳(19日). 冊13. 277.

72) 「燕山君日記」 卷28. 3年 10月 丁丑(9日). 冊13. 287.

식사 때를 맞추지 못하고 三殿의 문안도 늦어지게 되니 늦지 말도록 부탁했으며, 또한 허가 아파서 책을 읽지 못하므로 15일부터 나가겠다 하였다.<sup>73)</sup> 이 말을 전해들은 사헌부에서는 대간이 시간이 되도 나가지 않아 식사도 늦고 문안도 늦는다 하는 것은 전하께서 대간의 말이 괴롭고 싫증나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 언로를 막는 조짐으로 볼 수 있으며, 경연에도 드물게 나오는 것 등을 얘기하자 연산군은 허끝이 부르터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다.<sup>74)</sup> 13일에 15일부터 경연에 나오기로 약속하고서 무신만 사열하고 경연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홍문관에서 항의성 차자를 올려 무를 사열한 후 경연에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sup>75)</sup> 그러나 그 약속마저 다시 어기자 典翰 柳濱 등이 항의하여 19일부터 나오겠다는 약속을 받았다.<sup>76)</sup> 결국 약속대로 연산군은 10월 19일에 경연에 나와 特進官 李陸, 成俊, 領事 韓致亨, 안당 등과 독서한 후 시사를 의논하였으며, 주장에도 성세순과 강독한 후 토의하였다.<sup>77)</sup> 20, 21일에는 조강과 석강을 실시하였으며, 독서자료는 「大學衍義」를 선정하여 侍講官 南世周와 함께 강독하였다. 그리고 약 20일간 쉬었다가 11월 9일부터 조강에 나갔다. 조강에만 나가게 되고 주장과 석강은 생각지도 않았다. 즉 아침에 독서한 것을 반복 독서할 수 있는 여가를 마련하지 않고 놀기에 시간을 더 할애했던 것이다. 이에 洪貴達이 주장에도 나가서 경연에서 읽은 것을 다시 읽도록 건의하였으나 연산군은 약방제조가 된 그대가 나의 증세를 알고도 이런 말을 하면 내 병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고 일축하였다.<sup>78)</sup> 11일, 12, 14, 15, 16, 17, 18, 21, 22, 12월 1일, 12월 17일에는 강목 중 <漢 安帝紀>를 侍講官 南宮璨, 領事 盧思愼, 特進官 李克均 등과 독서한 후 토론하였으며, 18일에는 연산군 3년의 마지막으로 시강관 金詮, 檢討官 姜澂 등과 독서하였다.

73) 「燕山君日記」 卷28. 3年 10月 辛巳(13日). 冊13. 287.

74) 「燕山君日記」 卷28. 3年 10月 壬午(14日). 冊13. 288.

75) 「燕山君日記」 卷28. 3年 10月 癸未(15日). 冊13. 288.

76) 「燕山君日記」 卷28. 3年 10月 丙戌(18日). 冊13. 289.

77) 「燕山君日記」 卷28. 3年 10月 丁亥(19日). 冊13. 289.

78) 「燕山君日記」 卷28. 3年 11月 丁未(10日). 冊13. 294.

결과적으로 연산군 3년(1497)의 독서일정을 종합해 보면 1월 22, 23, 24, 25, 26일 까지 5회, 2월, 3월, 4월, 5월까지의 휴무, 6월 29일에 1회, 7월에는 1, 2, 4, 5, 6, 7, 8, 11, 12, 14, 15, 16, 17, 18, 19, 26, 27, 29, 30일까지 총 19회, 8월에 1, 2, 4, 6, 7, 8, 9, 11, 12, 13, 17일까지 10회, 9월에는 18, 19일 2회, 18일에는 주장 1회, 석강 1회를 실시하였으며, 10월에는 19, 20, 21일 3회 19일 주장, 21일 석강을 실시, 11월에는 9, 10, 11, 12, 14, 15, 16, 17, 18, 21, 22일 까지 11회, 12월은 1, 17, 18일 3회 독서하였다.

연산군 4년(1498)에는 무오사화가 발생하여 김종직 일파 등 수십 명의 신진 사류들이 사형당하거나 유배되거나 과직당하여 학문의 맥이 끊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해이기도 했다. 특히 경연에서 독서토론을 담당했던 表沿末(1449-1498), 魚世謙, 洪貴達, 金詮, 姜渾(1464-1519), 曹偉(1454-1503) 등이 유배되거나 좌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화를 겪은 연산군의 독서활동은 말할 수 없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1월에 3회, 2월에 8회, 3월 3회, 4월 2회, 5월 3회 등 한 달에 2, 3회가 전부다. 더욱이 6, 7, 8 월에는 날씨가 덥다하여 중단하였다. 독서자료는 여전히 「강목」이었다. 독서를 담당한 경연관은 시독관 成世純, 南世周, 侍講官 洪湜, 南世周, 南宮璨, 金對, 特進官 曹偉, 朴安性, 동지사 홍귀달, 領事 魚世謙, 司經 成重淹(1471-1501) 등이었다.

연산군 4년의 독서일정을 종합하면, 1월에 11, 13, 24일 3회, 2월은 18, 20, 22, 23, 24, 25, 26, 27일 등 8회, 3월에는 10, 11, 13, 14일 4회, 4월에는 28, 30일 2회 주장 28일 1회, 5월에는 1, 3, 15일 3회, 6, 7, 8월은 독서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9월은 25, 26일 2회 10월 11, 12, 13, 14일 4회, 11월에는 1, 13, 14, 23, 24일 5회, 윤11월에는 10, 12, 13, 14, 18, 19, 29, 30일 까지 8회, 12월에는 9, 13일 2회로 1월부터 12월 까지 총 41회의 독서력을 보였다.

연산 5년(1499) 들어 1, 2월에는 유자광 등의 처벌 문제 등이 불거져 나와 독서할 겨를이 없었다. 3월에 의정부에서 상을 마친지 오래되었으니(2월 초에 대행왕비 줄) 경연에 나오길 바란다는 건의를 하자 14일부터 나간다는 약속을 했지만 독서할 근거가 없다. 4월 21일부터 경연에 출타하여 「綱目」〈漢獻帝紀〉

와 <後漢紀>, <晋惠帝紀>를 읽었다. 그 이후에도 약간씩 읽긴 했지만 효과적인 독서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가까이서 지켜본 동지사 홍귀달은 「강목」을 독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세종·세조는 모두 「綱目」을 백 번씩 읽었습니다. 이 글은 인군으로서 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 역시 일찍이 읽어보았는데, 이해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원래 專文으로 된 것이 아니라 「資治通鑑」을 모아서 편찬하였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朝講에서 모르는 곳이 있으면 다시 晝講에서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글은 권수가 많고 복잡해 다른 부분도 대부분 강독하지 못하셨으므로, 萬機의 여가에 반드시 두 번 보시지 못할 것이니, 모름지기 강하실 때에 유의하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또한 持平 金效侃은 “전하께서는 경연을 많이 중단하시고, 朝講에 남시었다가 혹 晝·夕講을 폐하시며, 금일 남시었다가 명일에 정지하십니다. 부지런히 남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聖學이 날로 밝아지시길 바라옵니다.”<sup>79)</sup>라는 건의를 보면 이는 연산군의 독서행태가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음을 알 수 있다. 경연에서 강독하는 방법도 기존의 상·하번이 번갈아 가면서 강독하였는데 연산군 5년 12월 12일부터는 부제학부터 정자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강독하도록 하였다.<sup>80)</sup> 당시 경연에 참여한 인물은 典經 洪彦忠, 朴閔, 參贊官 崔璣, 正言 李孝敦, 特進官 朴崇質, 蔡壽, 同知事 成倪, 侍讀官 成世純, 鄭光弼, 申用漑 등이었다.

연산군 5년(1499)의 독서일정은 1, 2, 3월은 없으며, 4월에는 8회(21, 22, 23, 24, 25, 27, 28, 29일), 5월에는 5회(2, 6, 7, 8, 17일), 6월, 7월은 없고, 8월에는 11회(10, 14, 17, 18, 19, 20, 22, 24, 28, 29, 30일), 9월에도 없으며, 10월에는 8회(12, 13, 14, 15, 19, 23, 25, 27일)와 22일 주장 1회, 11월에는 9회(1, 15, 16, 17, 18, 19, 20, 23, 24일)와 24일 주장 1회, 12월에는 5회(1, 3, 14, 15, 16일)와 14일 주장 1회가 전부다. 1월부터 12월 까지 독서회수는 조강 총 46회, 주장 3회뿐이었다.

79) 「燕山君日記」 卷35. 5年 10月 癸丑(27日). 冊13. 383.

80) 「燕山君日記」 卷35. 5年 12月 丙申(12日). 冊13. 390.

연산군 6년(1500)에 대사헌 安琛이 경연을 중지하지 말 것을 상소하면서 경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해 1월에는 10일간의 독서태도를 보였다. 당시 1월에는 경연에서 관심사가 성종조의 시녀를 데리고 간 洪伯慶의 죄를 논의하는 일과 전라도 해변의 실농, 충청도의 콩이 부족하므로 군자창에 보관된 콩을 조달 하자는 것, 홍문관으로 하여금 「君臣明鑑」을 간행하라 해놓고 임사홍에게 총감 독을 맡으라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임사홍을 제외시킨 일, 西征에 대비하여 역로를 회복시킬 계획 등이 논의의 대상이었다. 2월에 이르러서는 경연회수가 2회로 그쳤다. 그 연유는 2월 초에 대행대비가 승하하여 2월 14일에 장례를 치렀으며, 유자광의 복직문제, 신종흡과 신종의의 승급철회문제(신종흡은 고을의 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물을 착복하였는데 3품으로 승진시키고, 신종희는 취재를 통해 들어온 자도 아닌데 첫 관직에 4품으로 채용함으로 인해 취소해달라는 내용) 등으로 인해 독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3, 4월에는 입술이 헐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구실로 독서를 멀리하였고, 5월초에도 독서를 권장했지만 3월 초부터 아팠던 입이 좋기가 나고 피가 흘러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 했다.<sup>81)</sup>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계속해서 경연에 참석하고 책을 읽었다. 5월 11일 사헌부의 상소에 집권한지 7년여가 되어 가는데 경연에는 한 달씩이나 나오시지 않기도 하고 혹은 며칠 만에 바로 폐지하기도 하니 덕을 쌓는데 미진할까 두렵다는 상소<sup>82)</sup>와 5월 15일 正言 李思恭의 건의로<sup>83)</sup> 16일부터 경연에 나온 것이다. 독서자료 역시 「강목」으로 <晋成帝紀>을 읽었다. 그 달 경연관은 侍讀官 金勘, 同知事 洪貴達 등이었다. 하기 싫은 독서를 억지로 권장하여 하도록 만든 신하들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지만 계속되는 권유에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경연에 나와서 독서를 하고 있는데도 중단하지 말고 나오라고 자주 건의한다면 독서에 관심이나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6년 5월 18일에 경연에서 독서하는데 정언 沈順門이 “근일에 오랫동안 경연이 폐지되었으니, 청컨대 부지런히 나오시어 중지하지 마소서.”하였는데 대응하지도 않았으며,<sup>84)</sup> 다음 날 19일에는 강목을 읽고 있는데

81) 『燕山君日記』 卷37. 6年 5月 戊午(05日). 冊13. 411.

82) 『燕山君日記』 卷37. 6年 5月 甲子(11日). 冊13. 412.

83) 『燕山君日記』 卷37. 6年 5月 戊辰(15日). 冊13. 413.

자꾸 執義 李滋, 領事 李克均 등은 강목의 중요성을 들어 晝講·夕講과 夜對에도 나와서 계속해서 읽도록 하였다.<sup>85)</sup> 6월에는 童淸禮의 일(위장에 임명하자 취소해달라는 건)과 洪貴達이 양주 목사 權仁孫에게 서신을 보내어 처제인 金氏의 송사를 청탁한 의문을 받고 경연관에서 체직당한 일 등이 있었다. 이 달 경연에 참여한 회수가 총 7회로 나타났다. 7월에는 날씨가 더운 관계로 책을 읽지 않았으며, 8월에는 2회 정도 독서를 하였다. 8월 2일에는 홍문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이 제왕의 시문과 잡저를 찬집하도록 하였다.<sup>86)</sup> 8월 13일에는 經筵官에게 명하여 桃李·杏菊·牧丹·丹楓·松竹을 題目으로 하여 각각 七言律詩를 지어 바치게 한 바 있다.<sup>87)</sup> 9월에는 20, 21, 27, 28, 29일 총 5회의 독서를 하였다. 특히 9월 26일에는 영의정 韓致亨, 좌의정 成俊, 우의정 李克均, 대제학 成俔 등이 弘文館員勸獎節目을 작성하여 보고한 내용 중에 홍문관에 소장된 장서를 조사한 뒤 파손되거나 없어진 책을 수선 보완하여 온전하게 보관토록 건의하여 성사된 일이 있다.<sup>88)</sup> 독서 부분은 「通鑑綱目」〈秦紀〉였으며, 侍講官은 成世純, 檢討官은 朴聞 등이었다. 10월에는 1, 5, 7, 8, 9, 10, 11, 12, 13, 14, 17, 24, 25일 등 총 13회를 경연에 나와 독서하였다. 이 달에는 내수사의 長利와 申從浥이 內膳寺正이 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 각 官司의 노비를 내수사로 이속시킨 것이 옳지 않다는 것과 월산 대군 집에 내린 물건이 너무 많다는 것 등을 논계하였고, 侍講官은 申用漑, 侍讀官 權鈞, 說經 閔源 등이었다. 10월 들어 연산군이 평소보다 많은 독서회수를 보였으나 다시 26일에 나오지 않자 사헌부와 홍문관에서 집권 6년 동안 「通鑑綱目」 1종도 완독하지 못한 원인이 환관이나 궁첩들을 가까이하고 즐기고 노는 날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禹나라 순왕, 夏나라 우왕, 殷나라 탕, 周나라 문왕, 漢 광무, 唐 태종의 학문관, 우리나라 세종, 성종의 학문관과 연산군의 학문부재의 현실을 비교하여 그 원인

84) 『燕山君日記』 卷37. 6年 5月 辛未(18日). 冊13. 413.

85) 『燕山君日記』 卷37. 6年 5月 壬申(19日). 冊13. 413.

86) 『燕山君日記』 卷38. 6年 8月 甲申(2日). 冊13. 422.

87) 『燕山君日記』 卷38. 6年 8月 乙未(13日). 冊13. 422.

88) 『燕山君日記』 卷39. 6年 9月 丁丑(26日). 冊13. 427.

을 일러 준 뒤 연산군에게 날마다 경연에 나와 독서할 수 있도록 권유한 내용의 상소를 올리자<sup>89)</sup> 11월부터 하는 듯 했다. 11월에는 과거의 채점규정, 병역기피자 신고, 왜적 방비 책 등을 논하였으며, 1, 2, 3, 4, 5, 6, 13, 14, 15, 20, 29, 30일 등 총 12회 경연에 참여하였다. 경연관은 特進官 尹孝孫, 侍讀官 姜澂 등이었다. 5일에는 경연에서 시독관 강징이 “『大學衍義』는 곧 聖經의 근본이요, 『史記』 같은 것은 모두 枝葉인 것인데, 근일에 晝講이나 夕講에 나오시지 않으니 마땅치 않습니다.” 하였으나, 대꾸하지 않았다.<sup>90)</sup> 이는 독서보다는 사냥에 관심이 더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29일에는 장령 金勿이 “『中庸』과 『大學』이 바로 性理를 말한 글로서 실로 正心하고 修身하는 근본이오니, 晝講과 夕講에도 進講하도록 하소서.” 하고, 領事 李克均도 “金勿의 아뢰는 말이 바로 格言입니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하는 도리가 그 두 책에 구비되어 있으니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였으나<sup>91)</sup> 관심 밖이었다. 12월에는 선전관에 임명된 이화 교체 건이 있었으며, 경연은 2, 3, 11, 12일 등 4회였다.

연산군 집권 6년(1500)에 실시한 독서 회수를 종합해보면, 1월 10회(17, 18, 19, 20, 21, 22, 23, 26, 27, 28일), 2월 2회(5, 6일), 3, 4월 0회, 5월 6회(16, 17, 18, 19, 20, 21일), 6월 7회(2, 3, 5, 6, 14, 16, 17일), 7월 0회, 8월 2회(13, 14), 9월 5회(20, 21, 27, 28, 29, 30), 10월 13회(1, 5, 7, 8, 9, 10, 11, 12, 13, 14, 17, 24, 25), 11월 12회(1, 2, 3, 4, 5, 13, 14, 15, 20, 29, 30), 12월 4회(2, 3, 11, 12) 등 총 61회였다.

집권 7년(1501)의 중요한 사건으로는 柳子光, 沈湄의 소행을 죄주자는 것, 충청도 충주의 죄수 玉同이 八同을 때려죽인 죄 등을 논하였다. 그 밖에 대간과 홍문관은 각각 직책이 다른데 대간의 일을 홍문관에서 관여하고 동료의 일은 말하지 않고 대신의 일은 반드시 논박하고, 대간은 홍문관에 제지당하여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서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관계였다. 연산군에게는 독서하기 싫은 차에 그러한 상황이 좋은 빌미가 되었다. 홍문관원 閔愾 朴闇 등이 언사

89) 『燕山君日記』 卷39. 6年 10月 戊申(27日). 冊13. 431.

90) 『燕山君日記』 卷39. 6年 11月 乙卯(5日). 冊13. 434.

91) 『燕山君日記』 卷39. 6年 11月 己卯(29日). 冊13. 436.

가 심하다하여 다른 죄수들과 함께 나누어 가두어 버렸다. 승지 安潤德과 愼守英이 홍문관원은 경연관으로 스승이나 벗과 같은 위치인데 그들을 하찮은 일로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건의하였지만<sup>92)</sup>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 일로 좌의정 成俊이 홍문관의 논박을 받아 사직을 청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년에는 1년 동안 독서량이 총 48회에 그쳤다. 그 과정을 보면 1월에는 입안에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책을 읽지 않았다. 2월에 5회(4, 5, 6, 7, 10일)로 시독관은 강징, 朴閔, 金千齡 등과 계속해서 『통감강목』 <魏紀>를 읽었다. 3월에는 독서한 날이 없었으며, 4월 들어 10회(12, 13, 21, 22, 23, 25, 26, 27, 28, 30일)를 독서에 참여하였고, 5월에 3회(11, 27, 28일), 8월 12회(8, 9, 10, 11, 12, 20, 21, 22, 24, 25, 27, 28일), 9월 4회(27, 28, 29, 30일), 10월 12회(1, 6, 7, 9, 13, 14, 15, 17, 18, 22, 23, 25일), 11월 2회(11, 12일), 12월에는 하루도 없었다.

연산군 8년(1502)에도 자주 경연을 폐하고 독서하지 않는 왕이 염려되어 사간원에서 동 3월에는 연산군의 8가지의 잘못을 지적하여 상소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가 경연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다. 궁척들과는 친하게 지내면서 사대부들은 멀리하면 누구와 더불어 선을 의논하겠느냐며 경연에서 열심히 독서할 것을 권장하였다.<sup>93)</sup> 동 3월 25일 영의정 韓致亨, 좌의정 成俊, 우의정 李克均이 대궐에 나아가 時弊 10조목을 올린 내용 중에도 첫 번째가 경연에 관한 내용이다.<sup>94)</sup> 4월 10일에도 지평 柳應龍, 정언 李崇老 등이 경연에 나오기를 청하였으나 연산군은 안질 때문에 나가지 못한 것이라 했다.<sup>95)</sup> 4월 20일 홍문관에서 1년 분량의 강목을 8, 9년이 되도록 완독하지 못한 원인과 당시 연산군이 성리서외에 다른 잡서를 보고 있는 것을 홍문관에서 알고 그런 책을 보지 말도록 권유하였다.<sup>96)</sup> 흥미 위주의 독서에 빠지면 유가경전에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으므로 경연의

92) 『燕山君日記』 卷41. 7年 11月 甲午(20日). 冊13. 457.

93) 『燕山君日記』 卷43. 8年 3月 壬午(10日). 冊13. 476.

94) 『燕山君日記』 卷43. 8年 3月 丁酉(25日). 冊13. 481.

95) 『燕山君日記』 卷43. 8年 4月 辛亥(10日). 冊13. 485.

96) 『燕山君日記』 卷43. 8年 4月 辛酉(20日). 冊13. 486.

참석회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4월 22일 사간 尹喜孫도 “요즈음 오랫동안 經筵을 폐하셨으나 신 등은 성상의 옥체가 편치 못하신 것으로 여겨 감히 啓請하지 못했습니다.” 하였으며, 집의 鄭麟仁은 “비록 未寧하시다고 하셨지마는, 매양 常參과 朝啓에 납시었고, 근일에는 또 東郊에서 농사짓는 것을 보셨는데, 유독 經筵에는 납시지 않으시니, 신 등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經筵에 납시옵소서.<sup>97)</sup>

4월 27일에는 대제학 成俔이 중국 사신 金輔가 진상한 「續綱目」을 인출하여 강독의 자료로 정하자고 하였다.<sup>98)</sup> 결국 4월에는 28, 30일 겨우 2회 經筵에 참석하여 特進官 朴安性, 蔡壽 등과 독서토론을 하였다. 그 후 계속해서 독서를 멀리한 날이 너무 많았다. 5월 26일에는 “근래에 날씨가 무덥고 또 배꼽 아래 結核된 곳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전에도 몹시 더우면 역시 經筵을 정지했으니 이번에도 정지하겠고, 만약 날씨가 서늘해지면 朝參을 받겠다고 하고<sup>99)</sup> 6, 7월 2개월 동안 독서를 전혀 하지 않았다. 8월 9일부터 經筵에 나와 10, 12, 13, 25, 26일 총 6회를 독서하였다. 8월 10일에는 장령 金晉錫이 “進講은 다만 句讀를 익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정치의 도리를 강론하는 것인데, 지금 講官이나 大臣들이 時政의 일은 강론하지 않으며 전하께서도 또한 묻지 않으시니,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자 연산군은 대간은 또 經筵에서 서로 논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史書는 經書에 비할 바가 아니므로 비록 글자마다 해석하지 않더라도 쉽게 깨칠 수 있다. 내가 비록 자질이 범상하여 진취의 성품은 없지만 만약 이를 읽고자 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알 수 있다.” 하였다.<sup>100)</sup> 金晉錫이 연산군에게 책을 읽으면서도 經筵관들은 토론에 임하지 않고 연산군도 질문하지 않으므로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자 경서보다 사서가 이해하기 쉬우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의미이다. 13일 이후부터 며칠간 經筵에 나오지 않자 8월 25일에 대간 柳世琛과 申澄이 다시 출석하도록 권유하여<sup>101)</sup> 26일 까지

97) 『燕山君日記』 卷43. 8年 4月 癸亥(22日). 冊13. 488.

98) 『燕山君日記』 卷43. 8年 4月 戊辰(27日). 冊13. 488.

99) 『燕山君日記』 卷44. 8年 5月 丁酉(26日). 冊13. 494.

100) 『燕山君日記』 卷45. 8年 8月 己酉(10日). 冊13. 508.

독서하였다. 8월에 읽은 강목의 범위는 <隋煬帝紀>부분을 읽고 6회 정도 토의 하였으나 9월에는 독서한 날이 없다. 9월 20일경에 우박이 내리자 하늘이 시정을 경계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왕이 경연에 충실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 것으로 보고 경연에 출석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우의정이극균이 앞장서서 仁政殿에 丹青을 칠하는 일은 거의 마쳤으니, 經筵에 납시어 어진 선비들을 접견함으로써 하늘의 경계에 참가 할 것을 건의하였다.<sup>102)</sup> 따라서 10월 들어 11, 12,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7, 28, 30일 등 15일을 독서에 전념하고 시정을 의논하는 면모를 보였다. 이 달 경연관에는 特進官 許琛, 侍讀官 강징, 司經 金慨 등이었다. 11월에는 1, 2, 3, 4, 5, 8, 9, 10, 11, 12, 15, 16, 17, 18, 20, 21, 23, 24, 25, 26일 등 20회로 의외로 많은 독서회수를 보였다. 11월 24일에는 경연에서 「綱目」 중 <唐高宗本紀>를 읽다가 則天武后의 일을 보고 지은 시가 전하고 있다.<sup>103)</sup> 12월에는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5, 26, 27, 28일 등 총 17일을 경연에서 보내었다. 독서자료는 「綱目」과 「大學衍義」를 병행하였다. 12월 12일에는 시강관 강징, 영사李克均 등과 「大學衍義」를 강하다가, 竇憲과 梁冀의 권세가 강성한 일의 내용에서 왕이“外戚으로 하여금 이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려면, 그 방법을 어찌해야 하겠는가?”라는 질문으로 토의하였으며,<sup>104)</sup> 동월 14일에는 「大學衍義」를 강론하는데 賈后가 흉악하고 질투심이 많아, 아기를 뱀 비를 던져 죽인 대목에서 檢討官 김극뽀, 特進官 盧公弼 등과 토론하였다.<sup>105)</sup> 당시 경연에 참석한 경연관 중에 정승은 세종 때 5일에 한 번씩 참석하고 성종 때에는 날마다 참여하였다. 그러나 연산군은 8년 12월 16일에는 몸이 아픈 정승은 2, 3일에 한 번씩 참여해도 좋다하였다. 이를 들은 승정원에서는 정승의 수효가 적어도 병든 사람이 있으면 무리하게

101) 「燕山君日記」 卷45. 8年 8月 甲子(25日). 冊13. 510.

102) 「燕山君日記」 卷46. 8年 9月 辛卯(22日). 冊13. 515.

103) 「燕山君日記」 卷47. 8年 11月 癸巳(24日). 冊13. 530.

“臣庸獻諛成陰禍, 君暗牽邪眩是非, 若使當時周·召在, 唐家應免世傳譏”

104) 「燕山君日記」 卷47. 8年 12月 庚戌(12日). 冊13. 533.

105) 「燕山君日記」 卷47. 8年 12月 壬子(14日). 冊13. 534.

참여할 수 없다 하자 연산군은 건강이 회복된 뒤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였다.<sup>106)</sup> 12월 17일에는 通鑑綱目<唐本紀>을 읽고 시강관 李自堅과 정언 吳益念 등이 토론을 하였다.<sup>107)</sup> 연산군이 「강목」에만 치중하여 읽어 온지가 8년이 넘었다. 이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아프다는 구실과 궁첩들과 즐기는데 오래도록 시간을 허비한 관계로 완독하지 못했다. 그래서 연산군은 당시 「강목」을 완독하려는 목적으로 국정보다는 책 읽는데 갑자기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그 걸 지켜본 시간 李懿孫과 掌令 金千齡은 조금씩 읽고 연구하여 깊은 뜻을 찾아야 하는데 많은 양의 독서를 한다고 하자, 연산군은 '독서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또 경학과는 같지 않으므로 많이 읽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다음부터 오늘 강한 바의 3분의 1을 줄이라고 하였다.<sup>108)</sup>

연산군 8년(1502)에 독서일정을 종합해보면, 총 72회로 2월에 4, 5, 6, 9, 10일 5회, 4월 3회(27, 28, 30일), 5월 6회(1, 2, 11, 12, 15, 21일), 8월 6회(9, 10, 12, 13, 25, 26일), 10월 15회(11, 12, 14, 15, 16, 17, 18, 19, 20, 23, 24, 25, 27, 28, 30일), 11월 20회(1, 2, 3, 4, 5, 8, 9, 10, 11, 12, 15, 16, 17, 18, 20, 21, 23, 24, 25, 26), 12월 17회(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5, 26, 27, 28)이며, 1월, 3월, 6, 7월, 9월에는 한번도 독서하지 않았다.

연산군 9년(1503)에는 독서량으로 보면 최고의 기록을 세운 해이다. 독서일정이 총 115일이었다. 이 중 11월에 주장 3회(2, 9, 11일), 석강 10월 13일 1회에 그쳤다. 여전히 낮에나 저녁에는 독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월별 상황을 보면 1월에는 1, 2, 18, 30일을 제외하고 26일간 매일 경연에서 독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후 가장 많은 회수이다. 1월 3일 경연에서 領事 李克均과 同知事 柳洵은 「通鑑綱目」을 읽은 후에 「續綱目」을 추천하였다. 이 책은 宋나라, 元나라와 明나라 高皇帝의 出處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史法이 「통감강목」과 같으므로, 進講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하여 추천하였다. 그리고 주장과 석강에서 읽을 자료로 「東國通鑑」을 추천하였다. 연산군은 「續綱目」을 속히 인출하

106) 「燕山君日記」 卷47. 8年 12月 甲寅(16日). 冊13. 534.

107) 「燕山君日記」 卷47. 8年 12月 乙卯(17日). 冊13. 534.

108) 「燕山君日記」 卷47. 8年 12月 丁巳(19日). 冊13. 535.

여 독서에 대비하도록 했으나 「東國通鑑」은 반응이 없었다.<sup>109)</sup> 1월 14일에는 「通鑑綱目」<唐玄宗本紀>에서 황제가 蜀 땅으로 도망가는 대목에 이르러 領事李克均과 토론하였다. 그리고 이극균은 토론 중에 전에는 경연관들이 일찍 모여 서로 상의한 다음에 전하의 질문에 대비하였는데 지금은 전하께서 너무 일찍 경연에 나오시니까 토론준비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하자 연산군은 경연관들은 한 시대의 선량한 사람인데 어찌 꼭 그때에 임하여 토론하는가? 지금 보니 온갖 사무를 보는 사람이 마음이 헤이해져서 내가 만일 늦게 일어나면 재상도 또한 반드시 늦게 오니 이것은 사체에 있어 어떠하오? 근래에 臺諫은 비록 작은 일이라도 명을 내리기만 하면 심각하게 의논하고 극단적으로 말하여 왕으로 하여금 손을 놀리지 못하게 하니, 이것은 무슨 풍습이오? 라고 반박하였다.<sup>110)</sup> 1월 15일에는 「通鑑綱目」에서 양귀비가 처형당하는 대목을 읽고 侍讀官 강징, 領事 柳洵과 양귀비를 죽여야만 옳은가하는 문제로 토론하였으며,<sup>111)</sup> 1월 24일에는 「通鑑綱目」에서 ‘第五琦가 什一의 법으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들일 것을 아뢰었다.’는 문제로 侍講官 南袞과 토론하였다.<sup>112)</sup> 이날 연산군은 오른쪽 눈이 아프고 눈동자가 또한 약간 부은 듯하다하여 晝講과 夕講에 나아가지 않았다. 1월 29일에는 通鑑綱目 唐德宗 本紀에 郭子儀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外地에 있으니, 程元振과 魚朝恩이 온갖 참소를 했다는 대목에서 侍讀官 權弘과 토론을 하였는데, 연산군이 권홍에게 “그때의 군주가 용렬하고 우매하여 참소하는 사람을 처형하지 못했는가?” 하는 질문에 권홍은 “정원진과 어조은은 모두 병권을 잡고 권세를 마음대로 부린 宦官이었는데, 만약 曠자의가 병권을 잡으면 권세가 제거되므로 참소와 이간이 이와 같았습니다.”<sup>113)</sup>라고 우문부답 하였다. 왕이 두 번씩이나 질문했는데도 그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2월에도 6, 16, 17, 20일을 제외한 26일간 매일 경연에 나와 경연관들과 책을 읽고 토론의 면모를

109) 「燕山君日記」 卷48. 9年 1月 辛未(03日). 冊13. 536.

110) 「燕山君日記」 卷48. 9年 1月 壬午(14日). 冊13. 538.

111) 「燕山君日記」 卷48. 9年 1月 癸未(15日). 冊13. 538.

112) 「燕山君日記」 卷48. 9年 1月 壬辰(24日). 冊13. 540.

113) 「燕山君日記」 卷48. 9年 1月 丁酉(29日). 冊13. 540.

보였다. 독서범위는 13일에 「通鑑綱目」 德宗本紀 중 ‘裴延齡이 咸陽의 갈대밭 몇 畝를 방죽 수백 頃이라고 속여서 말했는데, 德宗은 그 속임수를 알고도 죄를 주지 않았다.’는 대목과 15일에는 여름철에 일식이 있었다는 대목을 이극균, 참찬관 金勸, 同知事 成倪 등과 토론, 19일에는 唐憲宗本紀 중의 내용을 侍讀官 權達手, 知事 盧公弼 등과 토론, 21일에는 侍讀官 權弘, 27일에는 <唐憲宗 本紀>에 ‘韓愈가 佛骨表를 올렸다.’란 대목에서 侍讀官 南袞과 토론하였다. 3일에는 5, 11, 21, 22, 23, 24, 28, 29, 30일을 제외한 21일 동안 독서를 하였다. 1일에는 任士洪과 李世俊의 승진문제, 2일에는 참찬관 남곤과 「강목」의 내용 중 劉蕡의 對策에 대해서 토론, 4일에는 ‘여름 6월에 가뭄이 심하니, 李敏中이 鄭注를 베어 宋申錫의 원한을 씻어 주면 하늘이 반드시 비를 내릴 것입니다.’ 한 대문으로 시독관 강징, 동지사 成倪 등과 토론하였고, 25일에는 시독관 鄭麟仁. 이극균 등과 제포에 왜인 제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였다. 4월에는 점차 독서력이 떨어져 1, 2, 3, 5, 6, 7, 23, 24, 25, 28일 등 총 10일 정도에 그쳤다. 4월 2일에는 경연에서 현납 최숙생이 풍악과 여색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성리학에 힘쓸 것을 권고했는데 연산군은 그에게 가상하다 하여 녹비를 하사하였다.<sup>114)</sup> 술과 여색, 사냥 등에 빠져 독서를 하지 않던 연산군이 갑자기 열심히 독서하던 모습을 보이면서 최숙생에게 상을 내린 것은 그의 속 내면을 이해하기 어렵다. 4월 7일에는 경연에서 연산군이 발음이 정확한 경연관 몇 사람만 선정하여 진강하도록 하자 대사간 이자건이 성종의 경우 모두 진강하게 하였으니 참석한 경연관 모두 진강하도록 하는게 좋다고 했다. 그러나 연산군은 성종은 고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본인은 경연관이 분명하게 읽지 않을 경우 그 뜻을 알 수 없다하여 승낙하지 않았다.<sup>115)</sup> 사실 연산군은 독서량이 적어 그의 말에 수궁이 간다. 5월에 이르러서도 15, 16일 이틀 밖에 독서를 하지 못했으며, 6월, 7월에는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7월 14일에 연산군은 8월 1일부터 경연을 조강만 한다고 통보하였다.<sup>116)</sup> 8월이 되어 1, 2, 3, 6, 7, 8, 9, 12일 등 총 10일간 독서하였다. 13일에 홍문관에서는

114) 『燕山君日記』 卷49. 9年 4月 戊戌(2日). 冊13. 555.  
 115) 『燕山君日記』 卷49. 9年 4月 癸卯(7日). 冊13. 556.  
 116) 『燕山君日記』 卷50. 9年 7月 戊寅(14日). 冊13. 570.

대위문제로 정지한 경연을 재개하되 宣政殿(경연을 열고 정사를 듣는 곳)의 月廊을 고치기 때문에 寶慶堂에서 경연을 열도록 했으나 연산군은 그 곳이 내전과 가까우므로 사대부를 접견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sup>117)</sup> 결국은 8월의 독서는 12일로 막을 내렸다. 9월에는 29일에 1회 경연에 참석하여 독서했으며, 10월에는 1, 2, 7, 8, 9, 13, 14, 24, 25, 30일 등 총 10회였다. 10월 7일에는 지평 鄭鵬이 조강, 주장, 석강 모두 「강목」만 강하지 말고 理學에도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고 하자 연산군은 정봉에게 “전에 弘文館에 있을 때에는, 강목」을 강하여야 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역사를 읽을 것이 아니라 하니, 어찌 전후가 다른가?”하니, 정봉이 “전일에는 오래도록 경연을 폐하시고 또 「大學衍義」를 함께 보시므로 「綱目」을 강하셔야 한다고 아뢴 것인데, 지금은 세 때 경연에서 모두 「綱目」을 강하니, 이학을 앞세워야 하겠기에 감히 아뢴 것입니다.”<sup>118)</sup> 11월에는 1, 2, 3, 4, 9, 10, 11, 23일 등 총 8회 경연에 참석하여 독서했다. 과목은 여전히 「綱目」이었으며, 2일에는 「綱目」의 강독이 거의 끝나가자 鄭光弼이 「春秋」는 聖人이 쓸 것은 쓰고 깎을 것은 깎아버린 글로서 褒貶하는 법이 갖추어진 책이므로 읽어야 한다고 추천하자 연산군이 수락하였다.<sup>119)</sup> 11월 4일부터 8일 까지 신병상의 이유로 경연정지를 공개하고 5일간 휴무에 들어간 다음 9일부터 다시 경연을 재개하였다. 侍讀官은 沈貞, 李自華 등이었다. 14일에는 경연관들에게 明政殿 뜰에서 잔치를 베풀고,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면서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의 어서를 내리기도 하였다. 11월 21일에는 연산군이 사대부들을 불러 잔치를 열고 서로 대취하여 酒肆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영의정 성준에게 호피와 어의를, 좌의정 이극균에게 어의를, 그리고 신발을 벗어 외손 韓亨允에게 주는 등 참여했던 신하들이 술에 취해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연산군 역시 “어제 과음하여 실수 하였으니, 인군의 敗德이 이보다 더할 수 없고 역사를 더럽힘도 이보다 더할 것은 없다. 군신 간에는 의당 예절로 대해야 하는 것인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내일 經筵에 나가야 하겠으나 대신들 보기가 부끄럽다.”하였다.<sup>120)</sup> 그리고 이튿

117) 『燕山君日記』 卷50. 9年 8月 丁未(13日). 冊13. 572.

118) 『燕山君日記』 卷51. 9年 10月 庚子(7日). 冊13. 577.

119) 『燕山君日記』 卷51. 9年 11月 乙丑(2日). 冊13. 580.

날 23일에 경연에 나아가 독서와 시정을 논하였다. 12월에는 1, 2, 7일 총 3회였으며, 시독관은 李自華였다.

연산군 10년(1504)은 역대 가장 피바람이 심했던 해이다. 무오사화와는 달리 자신의 원한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신하들을 무참히 짓밟은 사건이었다. 자신의 할머니, 계모, 스승 등 관련된 인물은 모두 피해자가 되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경연은 거의 열리지 않았다. 불과 독서일은 1월 30일, 2월 18일, 21일, 22일 총 4회로 막을 내렸다.

3월 24일 대신들이 폐비 윤씨의 시호를 의논하면서부터 사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연산군이 승정원에 전교하여 廢妃할 때 의논에 참여한 재상과 궁궐에서 나갈 때 시위한 재상 및 死藥을 내릴 때 나가 참여한 재상들을 日記 를 열람하여 아뢰도록 하면서부터 시발점이 되었다. 대간들이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밝히기가 어렵다하자 연산군은 대간들부터 옥에 가두라 명하였다. 왕비를 폐위할 때 관련했던 모든 사람을 밝혀내어 사형을 처하거나 노비로 만들었다. 이미 죽은 자는 부관 참시 하였으며 가족까지 모두 죄를 주었다. 그 틈에 4월 23일에 사간 李忠傑, 지평 金崇祖가 경연에 나갈 것을 건의하였으나 연산군은 “경연에는 내가 어질지 못한 임금으로서 자리나 채우고 있을 뿐이니, 어진 신하들과 뻔뻔스럽게 나가는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래서 나가지 않는다.”<sup>120)</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 달인 윤 4월 23일에는 몸이 불편하다하여 공개적으로 경연 정지를 하였다.<sup>122)</sup>

당시 연산군은 주색에 빠져 독서할 생각도 없었으며, 유순 등은 문책당할까 두려워 권하지도 못하였던 것이다. 결국 경연이 폐지되고 왕의 위엄과 포학이 날로 심해져 한 마디 말만해도 죄주고 칼로 베고 하므로 모두 위태롭게 여기고 있었다. 그저 유순, 許琛, 朴崇質 등이 정승이 되어서도 자리나 채울 뿐 감히 바로 잡는 일이 없었고, 오직 명을 받들어 순종할 뿐이었다라고 사관은 기록하고 있다. 윤4월 26일에도 몸이 편치 못하여 경연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처럼 연산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독서를 회피하였는데 사실 그 이유가 홍문관의

120) 『燕山君日記』 卷51. 9年 11月 乙酉(22日). 冊13. 584.

121) 『燕山君日記』 卷52. 10年 4月 甲寅(23日). 冊13. 606.

122) 『燕山君日記』 卷53. 10年 閏4月 癸未(23日). 冊13. 616.

경연관에게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도 한 이유이다. 10년 8월 10일에 “經筵 때에 형편없는 무리들이 불쾌한 말을 많이 하니, 경연에 나갈 것이 없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본인은 나이가 들어 경연에서 더 공부하지 않더라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며, 경연에 나가지 않아도 정치는 행해졌고, 언관들도 본인이 잘 못한 일이 없어 자주 논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123)</sup> 이는 자신이 많은 인재들을 없애고 있는 처참한 상황에서 경연이 무엇이고, 독서가 무엇인지 상황판단이 서질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년 8월 15일에도 유순 등에게 “나의 학문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비록 經筵에 나가더라도 더 배울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자 유순 등은 건강이 좋아지면 나오라고 했으나 연산군은 건강이 좋아도 나가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그리고 승정원 및 홍문관에 경연에 마땅히 나가야 하지만 경연에 나가면 형편없는 무리들이 방자하게 불쾌한 짓을 하여, 들어오면 부당한 말을 하고 나가면 인군이 하는 일을 조롱하며 비웃으니, 이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이것은 처음부터 경연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교하였다.<sup>124)</sup> 그리고 2주일 후 8월 29일에 승지 權鈞에게 “내가 經筵에 나가지 않는 것을 조정에서 무어라고 하는가?”하자 권균은 “전일에 이미 정승 및 육조 판서·홍문관·대간에게 유고하면 나가지 않겠다고 유시하셨는데, 무슨 방해됨이 있겠습니까.”<sup>125)</sup>하고 연산군은 오래도록 경연에 나가 독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응을 보려했던 것이다. 10년(1504) 12월 4일에는 승정원에 “나는 본래 정이 둔한데다가 나이가 이미 많아져 이달이 지나면 벌써 30이 되고, 또 갑인년(연산군 즉위년, 1494)에 큰 병을 앓은 뒤로 총명이 날로 떨어져 학문이 진전되는 공이 없으니, 비록 날마다 經筵에 나간다 할지라도 또한 유익함이 없겠다. 한 달에 혹 3, 4차 群臣 들을 접견할 뿐, 夜對와 輪對도 또한 정지하여야겠다.”하자 승지들 모두 “성상의 학문이 고명하신데 경연을 어찌 반드시 날마다 해야 하며, 야대와 윤대도 어찌 반드시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하니, 연산군은 “전일 崔淑生이, ‘야대의 공부가 晝講보다 배나 된다.’하였는데 그

123) 『燕山君日記』 卷55. 10年 8月 丁卯(10日). 冊13. 654.

124) 『燕山君日記』 卷55. 10年 8月 壬申(15日). 冊13. 656.

125) 『燕山君日記』 卷55. 10年 8月 丙戌(29日). 冊13. 659.

말이 지당하므로 속생은 말 할 줄을 아는 쓸 만한 사람이라 하였더니, 큰일을 의논함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대저 그 사람은 글에만 능한 것이니, 또한 어디에 쓰겠는가.”하였다.<sup>126)</sup>

결과적으로 연산군은 10년 12월 26일에 홍문관을 폐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사간원 정언, 지평은 말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모두 낭청으로 개칭하였으며, 경연관은 직위 순으로 윤차로 경연에 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선왕조가 집현전을 폐지했듯이 자신도 홍문관을 폐지해야겠으니 경연의 숙직 관원을 축출하라 하였으며, 특진관도 폐지하였다.<sup>127)</sup> 그리고 11년 1월 4일에 경연관을 진독관으로 개칭하였다. 동 1월 13일에는 대제학 金勘에게 사헌부 지평, 사간원 정언, 홍문관 혁파에 관련한 문장을 지어 판에 새겨서 남겨라 하였다.<sup>128)</sup> 홍문관을 혁파하고 3품 이상의 관원 5명을 선출하여 진독관으로 하여 경연에 참여토록 한 것은 경연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나 그 뒤에 경연을 실시한 적이 없다. 11년 2월 18일에 ‘내가 10여년의 경연에서 고금의 치란을 대략 알았으니 경연에 나갈 것이 없다고 의정부, 육조, 승정원, 대간들에게 질문하자 유순 등이 경연에 굳이 남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sup>129)</sup> 사실 10년 동안 경연에서 독서했다고 하지만 연산군의 독서량은 480회에 불가하다. 3650일 중 480회니까 독서의 빈도는 13% 정도에 해당된다. 그 정도의 독서량으로 고금의 치란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경연에 오래도록 출석하지 않아도 문신들이 겁에 질려 경연에 가서 독서하자는 건의를 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연산군은 경연에 관련된 시를 지어 승정원에 내리고 화답의 시를 짓게 하기도 했다.<sup>130)</sup> 경연에 나가서 신하들을 자주 보지 못하자 선비들이 자신을 속이지는 않나하고 의심한 모양이었다. 확고한 답변을 들으려고 정원에 회답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경연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요사이 經筵에 나가지 않음

126) 『燕山君日記』 卷56. 10年 12月 庚申(4日). 冊13. 676.

127) 『燕山君日記』 卷56. 10年 12月 壬午(26日). 冊13. 679. / 10年 12月 癸未(27日). 冊13. 680.

128) 『燕山君日記』 卷57. 11年 1月 己亥(13日). 冊13. 684.

129) 『燕山君日記』 卷57. 11年 2月 甲戌(18日). 冊13. 690.

130) 『燕山君日記』 卷57. 11年 3月 丙午(21日). 冊13. 691.

“久廢經筵覺怠荒，元來輕士慢欺王。若非賢相誠忠輔，難得三韓業更昌”

은, 내 생각에 나이가 많아서 다시는 학문이 진보될 가망이 없기 때문이다.”<sup>131)</sup>라고 하였으며, 12년 2월 1일에는 경연을 없앨 수 없으나 강하기를 마친 후에 대간, 홍문관 심지어 연소배들까지 어지럽게 다루고 논계하여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고, 임금을 이기려고 중요하지 않은 친박한 일을 말하니 좋은 풍습이 아니며, 나이가 한창 때가 되어 건문이 넓어졌으니 경연에서 독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sup>132)</sup> 이는 유가경전 독서를 나이 탓으로 돌려 회피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그의 나이는 32세 정도로 현대의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 그 뒤 동 7월 14일에는 경연정지와 홍문관 혁파 등에 대한 敬誓文을 지어 후세에 알리도록 하였다. 그는 특진관을 진독관으로 바꾸고 독서하려 했으나 환경 상 쉽지만 않았던 것이다. 결국 12년 5월 1일에는 진독관도 없애버렸다. 그는 성리학의 기본서적인 경서에 치중한 독서를 벗어난 느낌이며, 또한 격식에 맞춘 독서를 탈피하려 했다. 그 근거로 「剪燈新話」, 「剪燈餘話」·「效顰集」·「嬌紅記」·「西廂記」 등을 謝恩使에게 부탁하여 사오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읽었던 「剪燈新話」는 간행해서 바치라고 하였다.<sup>133)</sup> 이중 연산군은 「剪燈新話」를 상당히 정독했던 것 같다. 신하들에게 「剪燈新話」를 하사하면서 그 내용을 인용하여 “서문에 정대하지 못한 임금은 오직 聲色이나 歌舞만 좋아하여 위아래가 서로 속이므로 정사가 헤이해지고, 國勢를 떨치지 못한다.” 하였는데, 어찌 성색이나 가무로 인하여 나라가 꼭 망하겠는가. 위아래가 서로 속임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前朝의 임금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sup>134)</sup> 국력을 떨치지 못한 이유를 성색이나 가무가 아니라 상하가 서로 다루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경서는 멀리하고 당시 잡서라고 하는 책에 빠져 독서하였다. 동년 8월 7일에는 「聯芳集」과 불만한 책을 燕京에 가는 사람에게 사오라고 부탁하자 승정원에서 「香臺集」·「遊藝錄」·「麗情集」 등을 선정하여 주었다. 이는 홍문관이 존재했다라면 생각지도 못할 독서행태였던 것이다. 이러한 연산군 독서는 부왕인 성종

131) 「燕山君日記」 卷58. 11年 5月 辛亥(27日). 冊14. 3.  
 132) 「燕山君日記」 卷61. 12年 2月 辛亥(1日). 冊14. 39.  
 133) 「燕山君日記」 卷62. 12年 4月 壬戌(13日). 冊14. 48.  
 134) 「燕山君日記」 卷62. 12年 4月 辛酉(12日). 冊14. 48.

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성종 말년에 이극돈이 「太平通載」·「補閑集」·「說苑新序」·「酉陽雜俎」 등을 간행해서 왕에게 바쳤을 때 홍문관 관원이 아침의 뜻으로 잡서를 진상하였다하자 성종이 이극돈의 편을 들어 ‘임금은 <四書五經>만 봐야 되느냐’ 하며 반문한 적이 있다.<sup>135)</sup> 이처럼 성종이 유가경서만 독서한 것이 아니라 흥미위주의 독서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면 연산군도 집권 말년에 흥미위주의 독서, 소설독서에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중종 때 蔡壽의 「薛公瓚傳」 저술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 2> 燕山君의 經筵에서의 總 讀書日(( )는 주강회수 \*는 석강)

年度	1	2	3	4	5	6	7	8	9	10	11	12	計	累計
1	0	0	0	0	3	0	0	2	3	0	7	(6)	15	15(6)
2	1(7)	0	0	4	0	0	0	0	9	2	0	7	23(7)	38(13)
3	5	0	0	0	0	1	19	11	2(1)*1	3(1)*1	11	3	55(2)*2	93
4	3	8	4	2(1)	3	0	0	0	2(1)	4	5윤8	2	41(2)	134
5	0	0	0	8	5	0	0	11	0	8(1)	9(1)	5(1)	46(3)	180
6	10	2	0	0	6	7	0	2	5	13	12	4	61	241
7	0	5	0	10	3	0	0	12	4	12	2	0	48	289
8	0	5	0	3	6	0	0	6	0	15	20	17	72	361
9	26	26	21	10	2	0	0	8	1	10*1	8(3)	3	115	476
10	1	3	0	0	0	0	0	0	0	0	0	0	4	480
11	0	0	0	0	0	0	0	0	0	0	0	0		
12	0	0	0	0	0	0								
總回數	46	48	25	37	29	8	19	52	26	67	82	41		480

<표 2>에서 보듯이 집권 12년 동안 총 경연에서의 독서회수는 480회로 나타났다. 독서를 했다 해도 거의 신하들의 권유에 못 이겨 억지로 독서한 흔적이다. 그래도 가장 많이 독서한 시기는 8년(1502) 10월부터 9년 3월까지 6개월간이다. 그 이후에는 조금씩이나마 책을 보다가 집권 10년(1504) 2월 이후부터는 한 번도 경연에서는 실시된 바 없다.

135) 「成宗實錄」 卷285. 24年 12月 己丑(29日). 冊12. 458.

#### 4. 結 言

조선조 연산군은 주색이나 사냥, 활쏘기 등에 관심이 많고 책 읽기는 가장 싫어하는 왕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가 왜 책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왜 책을 싫어했는지 경연을 통해 그 연유를 조사하였으며, 세자 시절부터 집권시절 까지 그가 읽었던 독서자료, 독서행태 등을 조사하고 최종 독서 회수를 파악하여 연산군 일생동안의 독서력을 밝혔다. 따라서 독서로 인한 인격이나 사회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산군은 8세에 세자로 책봉되어 서연을 열고 독서를 시작하였다. 과목은 「小學」, 「大學」, 「中庸」, 「論語」, 「孟子」, 「詩經」, 「尙書」, 「春秋」, 「少微通鑑」, 「十九史略」, 「大學集註」 등을 읽었으나 왕위에 오르기 까지 문리를 통하지 못하였다. 그 요인은 어머니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생활의 안정이 되지 못했으며, 공부가 끝나도 기다려 주는 엄마가 없어 항상 외로웠던 것이다. 서연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궁으로 들어가 궁인들과 놀기에 바빴던 것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자시절의 독서력이 뛰어나지 못했던 것은 외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 세자 시절에 문리를 통하지 못하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책을 좋아할 상황이 아니었다. 문신들의 권유로 경연을 열었으나 독서하려는 계획은 전혀 없었다. 발이 아프다, 눈이 아프다, 더위 먹었다, 감기 들었다 등의 구실을 삼아 독서를 회피하였다. 결국 그의 집권 12년의 총 독서회수는 480회였다. 년도 별로 보면 1년에는 독서 회수 15회, 2년 23회, 3년 55회, 4년 41회, 5년 46회, 6년 61회, 7년 48회, 8년 72회, 9년 115회, 10년 4회, 11년, 12년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보면 그가 얼마나 독서를 싫어했는지 알 수 있다.
3. 연산군이 집권시절 경연에서 읽었다고 하는 책은 대학연의 와 강목 뿐이었다. 성종의 경우 「강목」을 6여년 만에 완독하였다고 했으나 연산군은 집권 12년 동안 완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중중반정으로 인하여 폐위당하고 말았다.

4. 연산군 11년에는 홍문관 혁파와 함께 경연도 폐지하였으며, 특진관을 진독관으로 바꾸어 경연에 참여하도록 했으나 12년에 5월에 진독관도 없애 버렸다. 그 뒤 연산군은 계획적인 독서 보다 자유독서를, 유가경전 보다는 흥미위주의 독서를 하였다. 흥미 위주의 독서자료는 「剪燈新話」·「剪燈餘話」·「效顰集」·「嬌紅記」·「西廂記」·「聯芳集」·「香臺集」·「遊藝錄」·「麗情集」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연산군은 세자시절부터 서연을 열어 서연관과 열심히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 책과 가까이하는 시간이 적었다. 책을 읽어도 정독하지 않고 겉으로만 읽어 항상 생각이 부족했다. 어렸을 때 책을 싫어함으로 인하여 인성까지 바르지 못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몰라 문신들을 힘들게 했고, 선왕인 성종이 아끼고 그의 스승역할을 한 사람이 쓴 글을 판단력 부족으로 인하여 관련된 문신들을 참형시키거나 유배를 보내는 가하면, 어머니의 사건으로 인해 보복성 살인을 저지른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 것 등은 모두가 독서의 부재에서 온 것으로 판단된다. 올바른 독서생활과 진취적인 생각이 인명중시와 함께 인재양성은 물론 국가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한 단면이다.

## <참고문헌>

### 1. 原典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增補文獻備考

慵齋叢話

燃藜室記述

## 2. 論文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1991.

金允植, “朝鮮 燕山朝의 書籍文化에 관한 考察.” 書誌學研究 제34집(2006. 9), 157-184.

金重權. “朝鮮朝 經筵에서 成宗의 讀書歷 考察.”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南智大.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韓國史論』 6(1986), 117-170.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友石 文理大·法經大論文集 第4輯(1970. 12), 131-186.